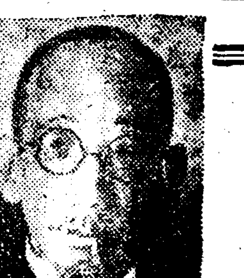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頁

美濃部學說問題 十六時間取調

學說만은强硬히自說固持 處置問題極困難乎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의 憲法學說問題는 重大化하야 江藤源九郞代議士의 告發을 基礎로한 東京地方檢事局戶澤檢事의 取調는 相當히 深刻을 極하야 取調를 續行하엿는데 그 著書中에 나타난 思想과 用語의 一一한 點에 對하야 檢事는 一一히 그 個所를 追及하야 一步라도 讓치 안는 强硬한 態度로 取調를 進行하엿다 그리고 博士는 엇던 點에 對하여는 檢事의 말을 諒解하고 用語를 改正하겟다 하나 學說에 關하여는 强硬히 自說을 主張하엿다 司法部로서는 이 點을 非常히 不滿하게 여겨 再三 翻意를 促한 模樣이나 博士는 容易히 此에 應치 안코 決裂되엿다 그리하야 檢察當局의 態度는 顯著히 硬化되엿다고 볼 만한 理由가 잇다 同日 만의 取調經過에 徵하야 消極的으로 不起訴로 斷定키 困難한 것이 잇서 于先 慎重히 事後의 處置問題를 檢討하기로 되엿다 博士의 辯明程度는 司法部의 容認도 困難한 바 取調는 樂觀을 不許하는 狀態에 陷한 模樣이다 (寫眞은 美濃部博士)

字句는改正해도 學說은不改正 歸後 美濃部博士談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에 對한 戶澤檢事의 取調는 午前七時半부터 午後十一時半까지 十六時間에 亘하야 續行되고 同十一時四十五分 博士는 小石川自宅으로 歸還하엿는데 博士는 말하기를 今日 戶澤檢事의 取調는 一切 口外에 내기를 許치 안흠으로 말할 수 업스나 所謂 不穩字句라고 하는 것은 全部 此際 訂正할 생각이다 그러나 著書의 絶版은 아직 생각할 수 업다 學說에 關하여는 世間에서 여러가지 말하나 從來대로 改正할 意思는 업다 또 天皇機關說에 對하여는 世間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가티 傳하나 나는 그러한 말을 한 記憶은 업다 天皇은 國家의 元首라는 것이 내가 主張하는 學說이다 今日은 自己가 말하고 십흔 것을 自進하야 陳述한 것으로 再召喚은 업스리라고 信한다

舊北鐵幹部撤歸

【哈爾賓七日發聯合】北鐵蘇聯幹部 크즈네초프氏及반데마氏以下百四十名은 七日午前十一時哈爾賓驛發特別列車로 滿洲里를 經由하야 本國으로 撤歸하엿다

政府、處置를急行 人心安定을企圖

檢察當局은首腦部會議開催 報告듯고閣議서決定

【東京電話聯合】美濃部博士의 天皇機關說問題에 對하여는 七日 檢事局에서 說明을 聽取한 結果에 基하야 八日 檢察當局에서 首腦部會議를 開催하엿슴으로 政府는 右 首腦部會議의 結果에 對한 小原法相의 報告를 기다려 內務、文部兩關係省에 內報하야 各其 處置에 對하야 具體策을 決定할 터인데 萬若 밋지 못하면 九日 定例閣議에서 小原法相의 說明을 聽取한 結果를 報告하야 政府가 取할 處置를 決定하야 可及的 速히 處斷하야 人心의 安定을 圖하려 하고 잇다 그리고 九日 定例閣議는 形從上 午後一時半부터 開會키로 되엿다

取調後 岩村檢事正談

【電通東京電話】岩村檢事正談 取調는 이것으로 完了되엿다 再調는 안켓다 事件은 極히 微妙하야 대번에 處理치 못할 闕所가 만타 例하면 事件이 消極的이냐 積極的이냐 하는 것도 一言之下에 斷定할 수 업다 萬一 積極的으로 기우러진다고 하면 博士의 身分上 여러가지 手續을 要하게 될 으로 簡單히 끗칠 수 업다

機關說에對하야 眞崎敎育總監 全國軍隊에訓示

【東京電話聯合】眞崎敎育總監은 天皇機關說問題가 日本國體觀念上 軍隊의 敎育에 미치는 影響이 重大한 것을 憂慮하고 全國軍隊에 訓示를 發하기로 되여 三長官이 協議를 거듭하고 잇든바 六日午後 敎育總監部에 열린 師團長會議에서 訓示를 行하는 同時에 同日 全國軍隊에 訓示를 發하엿다 그 內容은 相當한 長文인데 그 要旨는 左와 如하다 最近 國體觀念에 關하야 世上에 種種 謬說의 言說이 流行되는데 이러한 謬說은 我國體觀念上 絶對로 相容할 수 업는 言說임으로 軍人된 者는 이러한 言說에 誘惑되지 말고 軍務에 益益 勵精하야 崇高無比한 我國體의 明徵을 期할 것이다

『단찌히』投票結果 獨系六割六厘

聯盟要求의三分之二에不達 나치스東漸政策失敗

【電通단찌히八日午前一時發】단찌히自由市의 人民議會總選擧는 七日에 行하엿는데 即夜開票에 着手하야 八日午前一時에 이르러 公式最終結果의 槪數가 發表되엿다 此에 依하면 總投票 二十三萬票 中 나치스系의 投票는 十三萬九千二百票 即 六割〇六厘에 不過하는 바 단찌히市의 獨逸復歸를 國際聯盟에 要求할 수 잇는 主要條件인 總投票의 三分之二 即 六割六分六厘의 獲得은 드듸여 大大的 宣傳에도 不拘하고 失敗에 歸한 것이 判明되엿다

各黨得票數

【단찌히自由市八日午前一時發聯合】단찌히自由市 投票開票는 七日深更으로써 終了되엿는데 公式結果는 今日夜半에 이르러서도 發表치 안코 八日朝로 延期하리라고 觀測되는바 暫定的開票結果에 依한 各黨得票數는 左와 如하다

總投票	二四八、四二五
나치스	一四八、〇〇〇
社會黨	三九、七七九
中央黨	三一、九五六
共產黨	八、二六八
獨逸國權黨	一〇、六七一
波蘭黨	八、七五二

內閣運命은悲觀

政友會의策戰은成功 機關說問題도極困難 貴院有力側觀測

【東京電話聯合】岡田內閣은 前議會에서 政府提出法案의 不成立을 비롯하야 政黨關係에 對한 折衝 等이 잘못 拙劣을 極하엿기 때문에 政界一部에는 最近 五月政變說까지 傳하게 되엿는데 貴族院有力側은 現在의 政局에 對하야 大體 如左한 觀測을 하고 現政府의 運命을 悲觀하고 잇다 現內閣은 審議會를 組織하야 政策을 實施하드라도 큰 期待는 가질 수 업다 그러나 內閣審議會가 補强工作에 有效하게 成立될는지는 疑問이다 이때 政友會는 便利한 內閣을 希望하는 意味에서 來年의 總選擧를 압두고 倒閣에 邁進할 것이다 그리고 또 前議會에서는 政友會의 無解散倒閣運動이 豫想 以上으로 成功하야 世間의 現內閣에 對한 信賴를 完全失墜케 하엿다 政府의 運命도 最期에 잇슴으로 審議會가 完全成立되드라도 委員會參加식히기를 不肯할 뿐더러 他方 美濃部問題도 政府가 行政處分을 나린다 하드라도 그만한 理由가 업고 또 確固한 根據가 업다고 하면 一般이 承認치 안흘 것이다 著書發禁에 對하여는 安寧秩序를 侵害하게 되는 明確한 理由도 必要할 것이며 또 只今까지 秩序를 侵害한다고 認定치 안흔 著書를 今日에 와서 突然 有害하다고 認定하는 것은 世間을 首肯케 할 만한 證據와 法的 根據를 與치 안흐면 將來에 惡例를 남기는 것임으로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岡田內閣의 現在는 마치 大正十一年四、五月에 高橋是淸內閣이 末期에 際하야 英國皇太子殿下의 御來朝가 게시엿다가 鹿兒島를 御出發하신 後 直時 內閣의 破綻을 招來한 當時의 模樣에 酷似한 點이 極히 만타 그러나 審議會가 政府의 뜻대로 圓滑히 成立되면 多少 그 生命을 持續할 것이다

政府、政友會의 分裂에狂奔

審議會問題中心으로

【電通東京電話】政府는 滿洲國皇帝陛下御退京後 直時 內閣審議會 及 內閣調査局의 組織에 着手할 方針을 定하고 이에 岡田首相、高橋藏相、町田商相、床次遞相의 四長老間에서 基礎的 協議를 遂하야 近近 町田商相、床次遞相으로부터 高橋藏相에게 審議會副會長受諾을 勸說하기로 定하엿는데 政友會는 審議會에 委員을 보내지 안는다는 黨議를 방패로 强硬한 反對氣勢를 表示하고 잇는 바 政府가 가장 囑望하고 잇는 山本條太郞、中島知久平의 諸氏까지 假令 政府가 選拔的으로 委員就任을 交涉하드라도 此際 自己將來의 政治的 立場까지 犧牲하야 現內閣을 援助할는지 안할는지는 極히 疑問이다 政友會를 除外하고 組織한 審議會로서는 現內閣의 唯一標榜인 擧國一致에 相副되지 안코 重大한 政務文臨에 逢着하게 될 으로 政府도 이 點을 憂慮하고 今後 政友會의 態度에 狂奔하야 岡田首相自身이 鈴木總裁를 訪問하고 擧國一致의 援助를 懇請하는 等 後力局面打開를 試하리라고 한다

政友會內閣糾彈爲한 全國的遊說計畫

審議會에依한內閣補强工作에不滿 同時黨主義政策宣明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現內閣이 第六十七議會에서 無爲無力을 暴露하야 國民의 信念을 失墜케 하고도 어데까지 彌縫策으로 內閣審議會 等에 依하야 內閣의 補强工作을 行하려 하는 그 無責任한 態度에 對하야 非常한 不滿을 抱懷하고 此際 政黨에 基礎가 업는 官僚의 合同體가 如何히 無力하고 또 國民의 意思에 必要한 國策에 對하야 實行力이 업다는 것을 널리 全國民의 압페 明白히 하야 責任政治를 高調하고 政黨政治의 復歸를 圖할 것이라는 議論이 黨內에 擡頭되어 首腦部間에는 그 對策에 對하야 硏究하고 잇든 중 今秋는 府縣會議員의 選擧도 잇슴으로 全國的 大遊說計畫을 樹立하야 內閣의 責任을 糾彈하는 同時에 黨의 主義政策을 宣明하기로 大體 意見一致를 보게 되여 九日午後五時半부터 幹部會를 開하고 遊說部 總務 幹事의 具體的 對策을 協議하기로 되엿다 一方 政務調査會에서도 來十五日頃 政務調査總會를 開하고 今後 調査事項、要綱을 整備하는 同時에 遊說材料에 對한 具體的 協議를 行할 豫定이다

日露漁業條約改訂 外農當局意見一致

【電通東京電話】明年五月二十八日로써 期限滿了되는 日露漁業條約의 改訂에 關하야는 一個年前인 今年五月二十八日로써 通告를 發하기로 되엿슴으로 外務、農林兩當局은 前般以來 協議를 行하고 잇든바 六日 外務省에서 外務、農林兩省協議會를 開催하고 外務省으로부터 東鄕歐亞局長以下 農林省으로부터 戶田水産局長以下 關係官이 出席하야 午後六時半까지 約三時間半에 亘하야 協議를 行한 結果 完全히 意見一致되엿슴으로 外務省에서는 直時 在莫斯科酒匂代理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莫斯科政府와의 間에 漁業交涉을 行하게 하기로 되엿다 따라 酒匂代理大使는 來週初에 蘇聯外務當局을 訪問하고 日本政府의 方針을 傳達하기로 되엿는데 日本의 方針은 大體 左와 如하다고 觀測되는 바

一、現行條約은 種種 不合理한 點도 잇스나 附屬協定에 依하야 補正할 수 잇슴으로 交涉原則으로는 現行條約을 繼續하는 同時에 附屬協定에 依하야 事態의 變化에 伴하는 改正의 實效를 擧할 것

二、右趣旨를 實現하기 爲하야 次의 諸點에 關하야 協定을 締結할 것

가、昭和八年의 『日蘇漁業暫定契約』 『南山、카라한協定』의 趣旨를 擴大하고 從來의 安定漁區 增加를 永久化할 것

나、魚族保護制度의 新設

다、沖取漁業의 發達에 伴하야 從來의 漁區의 經濟的 價値가 低下되엿슴으로 借區料의 低下를 行할 것

라、借區料는 漁獲高를 基礎로 圓建又는 圓貨以外의 國際的 通貨에 依하야 支拂할 것

마、蘇聯國營漁區의 擴張과 組合漁業에 對한 特殊保護의 廢止

三、蘇聯側이 附屬協定에 依하야 右諸項에 關한 協定을 遂成하기를 承諾치 안는 境遇에는 五月二十八日以前에 다시 現行條約改正의 意思를 通告하야 現行條約에 根本的 修正을 加할 것

字句의修正으로 結局不起訴?

博士의身分處置가難題

【東京電話聯合】美濃部博士의 取調는 七日에 一段落을 告하엿슴으로 司法部는 八日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司法部로서의 同博士에 對한 態度를 決定하기로 되엿다 그리하야 小原法相은 九日 定例閣議에 詳細 報告하야 政府의 最後的 態度가 決定되리라고 觀測되는데 七日 美濃部博士를 召致한 結果는 同博士의 從來의 憲法著書中 社會의 誤解를 招致한 字句等의 改訂에 對하야는 自進改正할 意志가 잇다는 것을 말하고 博士의 學說根底가 되여 잇는 國體觀念도 何等 責할 點이 업다는 것이 明白하게 되는 模樣임으로 江藤代議士에 依한 不敬罪告訴는 不起訴되리라고 觀測되는 바 結局 博士의 著書에 關하여는 自發的 改訂으로 解決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러나 同博士의 身分上 問題에 關하여는 政府部內에는 同博士가 貴族院議員인 公職을 自發的으로 辭免하는 것으로써 事態를 收拾하려는 空氣가 잇는데 對하야 博士自身은 議員을 辭할 理由가 업다고 强硬한 態度를 갓고 잇슴으로 政府가 博士의 身分上問題를 如何히 取扱하는가는 上問題로 남어 잇는데 九日閣議에는 이 點에 關하야 相當한 論議가 잇스리라고 觀測된다

話題解說

小協商國

『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의 三個國家를 總稱하야 小協商國(Petite Entente)이라고 한다。小協商이란 大戰前 英佛兩國이 獨逸에 對하야 協商이라는 名目으로 共同戰線을 作成하얏든 것에 對比하야 大戰後 敗戰國인 獨墺洪三國이 同盟을 復活하야 獨立又는 領土의 回復을 꾀하랴는 것을 防止하기 爲하야 大戰結果 發生한 現狀을 維持하기 爲하야 協商關係를 맺게 된 때문에 「小協商」이란 名稱으로 알니게 된 것이다。小協商의 起原은 一九一八年十一月 平和會議時 巴里에 滯在中이든 루마니아 首相『라케요·네스크』체코 外相『베네쉬』『유고슬라비아』代表『파시취』三氏가 匈牙利의 復讐를 미리 豫防키 爲하야 未然의 防衛策을 商議한 것이 端初로 베르사이유 條約等 現狀維持派의 中堅인 佛國의 幹旋下에 베르사이유 條約과 『산제르만』條約에 依하야 獨立又는 領土를 膨脹한 前記三國은 一九二一年四月 三角的 軍事同盟의 形式으로 軍事協約을 締結케 된 것이다。

◇

小協商國은 그 個個의 一國家로서는 크게 稱道할 것이 못되나 그 全體로서는 現在 歐洲政治에 有力한 發言權을 가지고 잇스니 그것은 佛國의 이른바 衛星國으로써 『베르사이유』條約『산제르만』條約을 中心으로 한 現狀維持에 가장 熱烈한 態度를 取하고 잇는 때문이다 再昨年十一月 匈牙利 獨逸之不可侵協定이 成立되게 되자 波蘭도 小協商國 과 大體로 同一한 歐洲政局에 對한 態度를 取하면서 小協商國側은 漸次로 佛國의 態度에 追隨하야 蘇聯邦과 近接하는 態度를 보이고 잇다。近日 宣傳되는 對獨三國軍事同盟(佛、蘇、체코)說은 그間의 消息을 말하는 것으로 『체코』國이 三國軍事同盟에 加擔하면 『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二國은 『체코』에 對한 同盟關係上에서 關係으로 加擔케 되니 으로、어찌보면 蘇聯과 波蘭이 連繫를 强化하면、새로운 合縱連衡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든』氏臥床 旅行의疲勞로

【電通倫敦七日發】싸이먼外相을 代身하야 平和工作特使로 歐洲諸國을 二週間에 亘하야 歷訪한 이든國璽尙書는 歸英以來 疲勞가 甚하야 六日 싸이먼外相에게 一旦報告를 마친 後 直時 自邸에 入하야 靜養中이다 右는 飛行旅行의 疲勞와 連續的 重要會談 等으로 過勞된 것인데 醫師는 可及的으로 乘車와 乘船을 禁하고 적드라도 五六週間은 絶對安靜을 繼續할 必要가 잇다고 宣言하엿다

墺國의觀兵式에 飛行機公然飛翔

베르사이유條約禁止條項無視 各方面에衝動을惹起

【電通維也納七日發】墺太利大統領 미글라스氏及首相 슈슈니크氏는 今日 維也納軍隊의 春季觀兵式의 閱兵을 行하엿는데 當時 十五臺의 飛行機가 式場上空을 飛翔하엿다 此는 元來 墺太利가 平和條約에 其使用이 禁制되여 잇는 軍用機를 多數所持하고 잇다는 것을 公然히 天下에 表示한 것으로 同國政府가 獨逸의 再軍備宣言을 模倣하야 空軍의 整備에 着手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報道되여 平和工作의 前途에 多難이 豫想된다하야 再次 各方面에 非常한 衝動을 惹起하리라고 觀測된다

탕크도條約量의 約二倍를所有

【電通維也納七日發】墺太利陸軍當局은 七日 維也納軍隊의 觀兵式에 飛行機十五臺를 飛翔하엿는데 聞知한바에 依하면 此等軍用機는 그라츠附近의 某所에 秘密히 格納하엿든 것이라 한다 그리고 消息通은 墺太利軍은 軍事用트럭과 탕크는 산제르만條約에서 許容되여 잇는 臺數의 約二倍를 所有하고 잇다고 言하엿다

國際經濟調整必要 米國務卿力說

【華盛頓六日發聯合】國務長官 헐氏는 六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米國政府의 外交根本方針을 宣明하엿는데 世界平和確立에는 國際經濟問題의 解決이 前提이므로 米國政府의 方針도 이 主旨에 基하야 먼저 關稅低下를 目的으로 하는 互惠通商條約의 締結에 入할 것을 强調하엿는바 歐洲政局의 不安은 極點에 잇고 英佛伊三國共同會議도 近近 스트레사에서 열리게 되엿는 이때 이오 彼等은 金塊의 動搖로 國際經濟會議가 再次 提唱되고 잇는 이때이므로 六日의 헐國務長官의 聲明은 異常한 注意를 喚起하엿다

米國下院

軍事關係數案可決

【電通華盛頓六日發】今日의 下院本會議에 잇서서 軍需品不當利得取締案審議에 際하야 民主黨議員 下院陸軍委員長 쯘·마스우엔氏가 提出한 二修正案을 可決하엿는데 그 要旨는 左와 如하다

一、軍需工業會社의 利得에 對하야 百%의 過剩利得을 課함

二、戰時徵兵을 現行의 二十一歲로부터 三十一歲까지라고 한 것을 二十一歲以上 四十五歲로 改正함(此에 依하야 米國의 戰時兵力은 大約 二千三百萬으로 된다)

그리고 마스우엔氏가 提出한 右修正案에 關聯하야 下院은 戰時에 際하여는 國內의 모든 財産、燃料、資源을 徵發할 權能을 政府에 附與할 것이라는 共和黨議員 메유이·초드氏의 修正案을 可決한 後 陸軍兵士의 最低給料를 設定하야 不熟練勞働者의 普通賃銀과 同額으로 하는 主旨의 民主黨議員 기웃시·비氏의 修正案을 將來 米國兵士는 自國防衛의 目的以外는 武器를 잡지 안코 外國領土內에서 戰爭치 안흘 것이라는 民主黨議員 꺄잘드·오이로찰스·올악스 兩氏 共同提案의 修正案을 可決하고 散會하엿다

『라발』佛外相 廿三日莫府訪問

【巴里七日發聯合】라발外相은 스트레자會議終了後 二十三日 莫斯科를 訪問하고 同地에서 三日間 滯在하면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等과 歐洲平和過程에 對하야 種種懇談을 遂하고 다시 왈소우에 들러 波蘭當局과 會見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渡東中 九日朝 歸任豫定이든바 九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 歸任 變更

▲李範益氏(忠淸南道知事) 新任人事次來社

▲上內彦策氏(總督府保安課長) 同上

▲新貝肇氏(總督府警務課長) 同上

▲孫永穆氏(江原道知事) 新任人事次來社

▲張潤植氏=忠南道産業課長(九日午後三時發赴任) 赴任人事次來社

▲佐佐木咸南道內務部長 四月十日午前八時二十八分發列車로 家族同伴赴任豫定

八面鋒

◇ 每週三十臺式 二年後에 五千臺의 飛行機를 만들기 爲하야 獨逸이 工場을 總動員。

◇ 匈牙利도 再軍備를 斷行하고자 今週中으로 聯盟에 通告하리라고

◇ 『룸가리아』도 그저지나다가는 큰코다치겟다는 듯이 軍備計畫을 進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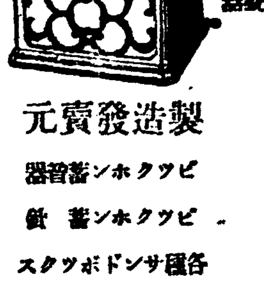
◇ 『스트레자』會議도 悲觀밧게 잇슬 것이 업스니 新國際會議를 召集해야 되겟다고 英國서 말성。

◇ 체코外相이 蘇聯을 訪問하고 佛蘇、체코三國軍事同盟說을 풍기고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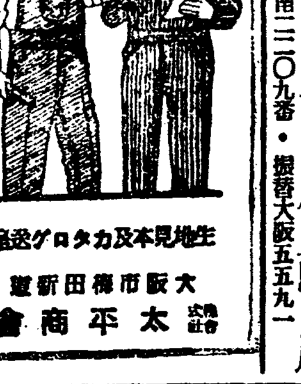
◇ 新聞紙面만 보아도 어려케 어수선하니、정말 歐洲天地는 엇지 되야가는 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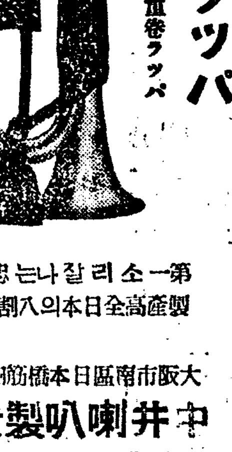
捻子鋲과 機械工具 工業用 自動車用 諸材料一式 製作卸 (商品送呈) 福住商店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十三 電話新町四六五六番

ピツノホン號 蓄音器 同業者에 商報送呈 製造發賣元 ピツクホン蓄音器 ピツクホン蓄針 各種サウンドボツクス 各社レコード各種附屬品一式 日本 ビクツホン蓄音器商會 大阪西區梅本町五七



고무活字 고무活字 資本 少한 共同事業으로 最早容易 히잘사가됩니다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鍛冶屋町六八 電話南三二〇九番・振替大阪五五九一

世界で一番良い 萬力作業服  生地見本及カタログ送呈 大阪市梅田新道 太平商會

官私團體靑少年에絶對的信用잇는 軍隊ラッパ 九〇式三重巻ラッパ  ナカキオルガン、シレネギター、ハーモニカ 詳細卸カタログ是 營業者에限함 製造卸 第一소리잘나는忠勇印 製産高全日本의八割을占함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喇叭製造所 電戎五一二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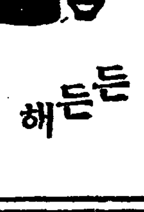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浪速區大川町一番 西本商店

春物 羅紗洋服品揃 大衆向 三ツ揃、學生型詰衿上下 レインコート、ズボン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卸問屋 田中宇商店 店章捺印ニ限リ定價表進呈 電話東三〇三五番 振替大阪三八二〇番

特價提供 SK式ヒユウガルポンプ カタログ進呈 マップ石油發動機 東門製作 卸 九喜商店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電話新町七二四番

サンコウ 特殊塗裝噴霧機 噴霧塗裝と其材料 瓦斯熔接機具と材料 商報進呈 三興商會 營業所・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四丁目 電話新町二二六一番 工場・大阪市住吉區平野大通三番地

讀者利用欄 四月一日附掲載 毎日三十圓 午前十一時半 午後三時七時半 ... 高普 四年生이요 學生이나 敎師 要事 ... 日本 府內 三層洞二四九 李

宴會도 はれやか 잇스면 든든해 

오케一三月特別新譜 (三月十五日發賣) 流行歌 砂漠의 恨 一幻影 獨唱 高福壽 (一七六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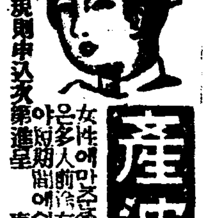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果樹苗木 一年生 自作優良苗各種 特別割引 二年生 各種類正確、苹果、桃、梨、李 其他 自下移植의 最好期至急下命을 乞함 一見園果樹苗木部 兵庫縣川邊郡山本

張一朶紅 창부타령 REGAL 리갈레코-드 在京中은 여러가지로 愛護하여 주시엇스니 때에 든 紛忙 不拘하시고 錢送을 하여주시어 그리고 今日出發 大端히 感謝합니다 大竹十郎 み よ 太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十一番地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通、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淸州、興、全州、裡里、長興、康津、釜山、元山、利川、永興、淸州、晉州、定州、平壤、同大同門、鐵原、新義州 出張所

蓄音器 レコード 樂器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名古屋西區伏見町三 菊谷商店 電話本局三四五四番 振替名古屋一八五三三番

 産婆看護婦志願者 女性에게 가장 有望한 天職으로 世人에게 尊敬받고 收入은 多大 ... 東京市牛込區 日本產婆看護婦學會 規則書込次第進呈

天下의 伊賀越 全十二卷 四月九日부터 特別大週間 團成社 桃花劇場 俺は水兵 봄의 메로듸 크레오파추라

無時出沒하는士兵隊 同胞村의婦女暴行

長白縣內移住同胞戰戰兢兢

春耕期에農作도躊躇

【惠山】지난오일오후구시경기동 불명의 토병약이십여명이 장백현 십삼도구가문(十三道溝何門)의 조선인 (시가지로부터약이십청)의조선인 촌락을 습격하여 동지 협화회(協和會)七(?)의오명에게대하야 금품제공을강요하다가동응하지못하고분김에동포 부녀십여명에게 폭행을 감행하고 동련시점에 돌아갔다는데 당지일대에는 이주동포가 가장만히사는곳으로 동포들은 전전긍긍하고있다 그리고 동구대호성(大胡城)부근에서 출몰하는 압동양(鴨東洋)의 일대약오십여명은그호사두방자(四房子)에돌아가서 동지를근거지로하여 강요소에수대의 경찰대를배치하고 모종의계획을 획책중이라고하며 그중약이십여명은 오일밤십시경십사도구요방자(十四道溝要房子)오지손모(孫某)의 목재작업소에와서 륙일아츰 동북재소의 인부이명을 탈거하여갓다 도팔도구리명수리(八道溝明水里)에잡거한 공산군 마호산(馬好山)의일대 약사십명은 오일밤열시반경 신방자후강성(新房子後園城)에나타나서 동지일대가옥가에서 금품강탈을감행중이라고한다 이외가티로 병대들이 무시로출몰하여 금품을 략탈하고 심지어 부녀자들에게폭행까지하여 동포들은 춘경기를앞두고 마음노코 농사지을도리를못채리고잇다고한다

米羅府視察團來京

「로산젤스」상업회의소주최의극동시찰단일행 이십삼명은 십일오후두시오십분착열차로 만주로부터 입경할예정인데 일행은 「로산젤스」의일류명사와 실업가들인바 단체로서경성에서는 총독부와 조선상공회의소와 국제친화회등으로환영준비를진행중이다

清涼里火災 五戶全燒 損害千餘圓

칠일오후 한시오십분경부외 숭인면청량리(淸涼里)일백사십육번지 신탄상 리배순(李培淳)의 집에서 불이나서삼동오호를태우고내시삼십분경에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일천이백원가량이라 하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다

警備道路도開拓 東邊道農村武裝

滿洲國에서大規模開發方針

共產軍防備策으로

평북대안동변도(東邊道)에는십여만조선인이 이주하여 살뿐아니라최근에는 공산군의근거지로 평북경과의 관계가 밀접하게되야 그지방일대에대한 만주국과 조선측의관심은 매우커가는터이며 또만주국의 동변도개발계획도 대규모로진행되고 잇다는데 다시금번에와서는 만주국에서 동변도일대의농촌개설 계획을세우게되야 우선경비도로를 맨들고 부락은전부집단부락으로 무장을하야 부락의주위에는 철조망과포대(砲臺) 등까지 설치하야 공산군의습래를방지하게쯤설계를한다고한다 되야다는데 전고리의수는 아편재배지(栽植地)에살고잇는니만콤밀접한관계가 농후하다하며 또한국자가근방에서도류하여든것을미루어방금어중조사중이나사건은점점확대될듯하다한다

共黨再建事件判決

金斗禎엔六年役

其餘는求刑대로言渡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朝鮮共產黨再建鬪爭協議會)사건의 관계자김두정(金斗禎)등일곱명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언도공판은팔일오전열시 경성지방법원에서산하(山下)재판장담임 촌전(村田)검사립회로개정되어 다음과가치언도되엇는데김두정이구형보다 일년이감하여륙년으로된 외는 전부구형대로되엇스나 박상근(朴尙根)이 집행유예삼년 윤상덕(尹尙德)서상락(徐尙樂)량인이집행유예 오년씩으로 되엇고 또 미결구류통산은 윤상덕이 삼백일그남어지는전부 삼백오십일이다

	言渡	求刑
金斗禎	六年	七年
宋漢壽	六年	六年
文鍾夏	六年	六年
徐尙樂	二年	二年
吉且釗	二年	二年
朴尙根	二年	二年
尹尙德	二年	二年

文潮江浦에서 腐爛女屍發見

【川內里】지난이일오후세시경문천군귀산면신천리(歸山面新川里)문조포강물에서는죽은지 이삼주일이되엿슬뜻한 시체한개를 발견하엿다는데 시체는 처참하게되여 형모를알아볼수업고 의복으로보와 다못녀자시체인것만을 알수잇다고 한다

업은애는죽고 어머니만救助

대동강물에뛰어들엇다가

어머니殺人罪로取調

【平壤】자살하려고강에뛰어드럿다가 동행이루지못하고 업엇든자식만죽이고 말엇다는 비극이잇다 오일오전 평양부륙로리(陸路里)에 사는 김모라는 녀자가 아이를업은채 물에뛰여든것을 부근에정박중이든 선부들이구하여 대동파출소로인도하엿는바 그는 자칭김명숙(金明淑)(二二)이란녀자로자살하려다가 업엇든아이는 그만죽고 외아무대답이업섯다 그가 업엇든

유모

두살된 사내아이는 몸에문이잇겨 잇슬동안에 돌봐만히 어더든다시져 로 무참히사망하여 평양에서 취조를 개시하엿는데 여경이를 단을고 아무대답이 업다한다

軍浦場附近서 汽動車또轢人

고양군사는칠십세로인

商人으로鐵路橫斷中

칠일오후세시경에 경성을 처음떠나수원(水原)으로가든기동차제구백이십호가안양,군포장(安養,軍浦場)간부산기점 사백이십키로미돌부근을 진행하든중 삼십미돌앞에 조선로인이잇슴을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얏스나 밋지못하고 목사하얏는데 조사한결과 그는고양군룡강면공덕리(高陽郡龍江面孔德里) 서왕순(徐往淳)(七〇)으로판명되얏는데 그는소장으로 잡화를 가지고 행상하든 중 철로를 횡단하다가 참사한것이라 한다

개를구하려다 婦女가轢死

팔일오전 여덟시에웅기(雄基)를 처음떠나서 경성으로오는 제오백팔호열차가 경원선왕십리,마장간(旺十里,馬場間)철로를 진행하든중 조선인녀자한명이 선로안에 들어서서 개를 구하려다가 피치못하고 그만 치어즉사하엿는데 그는영흥군인흥면송암리(永興郡仁興面松巖里)주명락(朱明洛)의 처한씨(韓氏)(五五)로판명되엿다

分財안한다고 親兄을打殺

고등법원서상고기각하야

無期懲役으로判決

자기 친형을 때려죽이고 무기징역의 언도를 밧고 상고하엿든 경북안동군풍산면수산동(安東郡豊山面水山洞) 김현정(金鉉定)이라는 젊은남자는 살인죄로 대구(大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판결을밧고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대로 판결을밧고 고등법원으로 불복상고하엿든 것인데 고등법원에서는 결국기각해버렷다

菜蔬실은『추럭』 泥醉者를轢殺

【仁川】채소를실은 추럭이 술취한사람을 치어죽엿다 인천부룡강정(龍岡町)안순명(安順命)의운전수리종복이가 채소를싣고 경성으로 향하야 운전하든중 송현정 근방에서 술취한사람을 치어 병원으로 옮기엿스나 절명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운전수를방금엄중조사중이라한다

高城染病猖獗

【高城】강원도고성지방에는 각종전염병이 발생하고잇는데 현하발생한병의종류는되척수막염(腦脊髓膜炎)장질부사(腸窒扶斯)마진(痲疹)등으로되척수막염만해서 사망자까지잇서일반은공포중이다

麥價法外로昂騰 細農民生活을威脅

災害地咸安一帶의窮相

惡地主等跋扈가念慮

【咸安】수해가업서도 매년 춘궁기를당하면 하로세끼의죽도 먹지못하는것이 세농층의 생활상태인데 금년은두해의 재해를겪근남어지에 곡가는 고칠할이고올으기만하여 보리한섬에 십삼원오십전이라는 고가로서 과거세게대전당시이후에 처시세이다 보리를상식으로하는 농민의 생활을여지업시 위협하고잇스며 관세관계로만주속조차 시장에녀허 진출하지못함으로 이와가티 보리쌀갑이올럿다 그러나농민들은 보리를아니먹을수업는상태에잇서서 방금극히궁상에 빠지어잇다 그런데춘경기를압두고 이와가티 농민들이식량에까지궁하여 잇는틈을타서 악덕지주며 사음또는비료상 그리고금업자들은 기회잇는대로 폭리를탐하려고하고잇서 재해지 함안일대의농민들은 극히전도가 암담한상태에잇다

八個所電話開通

체신국에서는 십년도제일회 전화시설사업으로서 다음여덜곳에 시내전화의 교환업무를 취급키로되야 오는십일일부터 가입신청을밧기로되얏다

烏山(京畿)南海(慶南)龜尾(同)鐵山(平北)義城(慶北)成川(平南)麟川(同)蔚珍(江原)

水上機福岡에墜落

【福岡電話】칠일 박다만(博多灣)에 입항한제일함대소속항공모함○○함에서 시륙구십식(九○式)수상정찰기한대는 칠일오전 열시반경복강(福岡)시상공에서비행중 기관에 고장이생기여중도정(中島町)안달(安達)자전거점뒤시 창고에추락

上告한柳海權 結局十三年

高等法院서上告棄却

다년간 만주에서 공산당원으로활동하엿스며 반××분자를살해하고 지주들의재산을강탈하야군자금에 사용하엿다는 사실로 치안유지법 및강도살인죄로 평양(平壤)복심법원에서 징역십삼년의 판결을밧고 고등법원으로 불복상고하엿든 황해도신천군(信川郡)류해권(柳海權)은 상고의 리유가업다하야 팔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이나렷다

各學校合格者

京城法政學校

朴勝德 李元洛 李琦鎬 文光泰 曹秀煥 朴泰云 桂鳳善 金洪燮 李鉉 金昌熙 朴禹鉉 朴勝讃 楊寧造 洪承禹 姜學求 趙三顯 尹文榮 金永宜 柳明奎 李康德 李會潑 朴癸東 尹起榮 朴政坤

天氣豫報

曇一時晴

高氣壓은 滿洲와 朝鮮에 擴大되고 滿洲方面은 氣壓이얏터 雄基北方海上에는 七百五十六미리의 低氣壓이 東進中이다 朝鮮南岸과九州는雨 中部는흐리고 北朝鮮은 日氣가조타 氣溫은 釜山九度와 中江鎭의 零度間에잇다 明日은흐리나 따뜻하다

昨日最高 二十度一 最低 零度七
今朝最低 五度七
今日正午 十二度三

勞働法令制定의 三局意見具體化

知事警察部長會에도諮問

年內로立案할方針

공장법(工場法)가튼것의로동법 제정에대하야는 이미학무국 사회과와 경무국에서시안(試案)까지 작성한일도 잇섯스나 식산국의의향은아즉 로동법규의 제정은시기상조라고 주장하야관계국간에 의론이통일되지 못하든관계로 그대로연되어 구체화되지 못하든바 최근에와서는 각도에서 로동법규의제정에대한요망이마시 안이라 사회정세로 보아도 시급상제정할 필요도잇서서 이에대한의견이 자조 총독부에 전달되야온다고 한다 그럼으로 총독부에서는 이번지사회의와 경찰부장회의에서도 자문을하야 관계삼국에서 충분히현의하야 대하고잇스나 식산국에서 반대의 견이농후한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든것이라한다 그리하야 금년에는 관계삼국에서는 각기로동법규에대한 재료를전부 수집하야 각기조안을작성한후 련합하야 현의를하야 금년안에는법령의 발표를보도록 해보자는 의견이진행되고잇다한다

第二次港灣修築準備中

仁川、釜山、麗水、淸津等地

六月中엔着工豫定

총독부의 제이차 항만수축계획(港灣修築計畫)은 소화십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총액일천사백만원을 던저서 인천(仁川)은구개년에 구백이십삼만원 부산(釜山)은오개년에 이백만원 려수(麗水)는오개년에 이백사십만원, 청진(淸津)은 이개년에 륙십만원으로 이상네항구에 실시하기로 되얏스므로 내무국에서는 실시준비에 분망중이다 인천, 려수두곳에는사업연도부터 토목출장소를두어 진용이정비되얏고 부산청진의 량항은오월초순에 되얏스며 려수는 륙월중에나되리라한다

國境에出沒든 生阿片密輸犯

【仁川】본적을함북길주(吉州)에두고간도(間島)국자가(局子街)로출몰하든리의수(李義洙)는지난륙일오후구시경생아편약딸백몸메(匁)(시가약오백원)를휴대하고인천부지나정(支那町)근방을배회타가 소관서원의게 발각되야체포

侍天聖節記念終了

시내견지동시천교중앙종무부(侍天敎中央宗務部)에서는 예정과가티 지난오,륙량일그교개교성절기념(開敎聖節記念)을 긔하야기념례식,강연회,축하여흥회,중앙공회(中央公會)등 각종집회를 천조선대표자 오십여명이 원만히 마치는 일방 중앙간부를 개선 하엿는데 그씨명은다음과갓다

大道師金士永 中央宗理長韓寅洙 庶務課長徐采 經理課長具鳳書 布德課長韓泰洙 監察課長許均 司書李正旭 崔巖鎬

孫義庵出世紀念式

시내 경운동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팔일이동교제삼세교조 손의암선생(孫義庵先生)의 출세제칠십사회 그녀일이므로 동일상오십일시에 집례 최준모(崔俊模)씨 사회의 식사와 강사이종린(講師李鍾麟)씨의기념사로서 기념식을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運動競技

籠球의常勝軍 東京帝大

九日對OB戰

日本籠球界의 常勝軍東京帝大籠球一行十二名은 高橋마네저와相馬主將引率아래 昨七日午後三時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하게入京하야 本町浦尾旅館에 投宿하엿다 東大軍은 明九日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籠球코-트에서열리는 對全京城OB軍과의 對抗籠球戰을비롯하야 全延專(十日)全普專(十一日)、全京城(十五日)等과 前後四個日을 行할터이라는데 一行의陣勢는 이미報道한바이어니와 在京籠球인의 對戰은滿都籠球팬의人氣를이끌고잇다

◇寫眞은 昨日入京한東京帝大籠球團

十六歲米少年 世界背泳新記錄作成

【紐育聯合四日發】四日부터當地에서열린 全米室內水上選手權大會第一日의百五十碼背泳決勝戰에 當年十六歲의「아돌프·키-프」사-(시카고)少年은 一分三十六秒一의世界新記錄을作成코優勝하야 從來의選手權保持者『란데·웨-』와및『다니엘·제어』를 一敗塗地케하엿다 右記錄은 昨年四月同大會에서 『웨-』選手가 지은一分三十六秒九를 ○·八秒短縮시켯다

朝鮮에來征할 比島拳鬪 陣容을決定

明年으로鄭迫한世界的權鬪制覇의準備工作으로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에서는 來五月下旬에 比律賓의選拔軍을 京城에招聘하야 朝鮮對比律賓의國際的拳鬪對抗戰을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 比律賓選拔軍一行은 五月中旬에東京神宮外苑씨름場에서열리는第二回日比拳鬪戰에 出場하엿다가 五月下旬에는京城에來征할터이라는데 比律賓來征軍의陣容은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한다

【푸라이級】누나구, 쁘라시베
【뺀탐級】가부리엘, 라라하사흡
【페더-級】가부고, 매그카오리
【라이트級】구나난, 스카이루스
【웰터-級】데데마스든로, 상골

牛劍뽀-트레스 世界最古의 劍橋十二年連勝

【倫敦發電】世界스포-츠界에서最古의歷史를가진 第八十七回『켐부릿지』『악스포-드』兩大學의 『뽀-트레스』는 지난 六日午後一時四十五分부터 템스河下流四哩四分一코-스에서擧行한바結局『켐부릿지』의力漕 功을奏하야 十九分四十八秒로『악스포-드』를 四艇身半을떠러트리고 十二年間連勝의新記錄을지엇다 따라서兩大學對抗競技開始以來 百七年間에『켐부릿지』四十六勝『악스포-드』四十勝一無勝負라한다

大邱庭球大會日程

【大邱】庭球로이름놉흔 大邱에서는 씨-슨을마지하야 各種大會가 계속하야열리는바 그日程은다음과가탓다

▲四月十四日大邱庭球選手權大會▲同二十一日大邱庭球聯盟大會▲同二十七日大邱女子庭球大會▲五月五日老童庭球大會▲同十九日對釜山庭球大會▲同中旬中等學校聯盟庭球大會

中等選拔野球決勝 岐阜商業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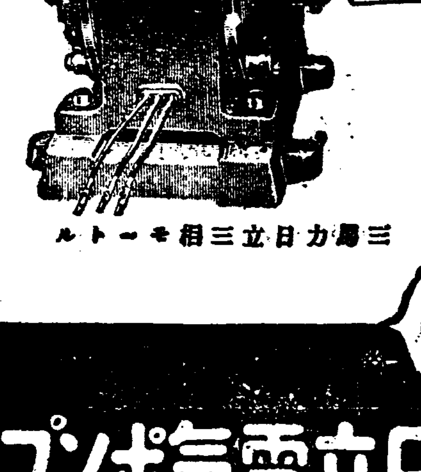
5對4廣陵敗

【大阪發電】全日本中等學校選拔野球大會決勝戰=岐阜商業對廣陵中學戰은 七日午後二時五分부터 甲子園球場에서 岐阜先攻으로開始되엇는데 接戰끄테結局5對4로 岐阜商業이優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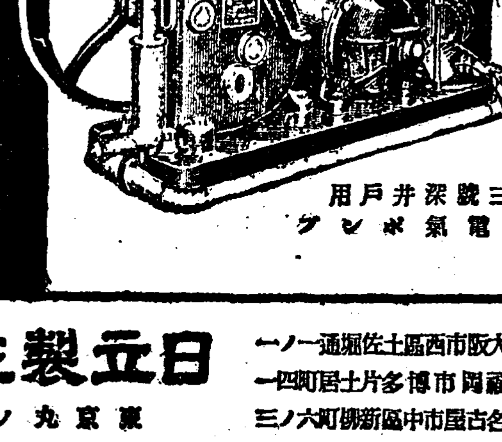
岐阜 100 040 000 —5
廣陵 002 200 000 —4

運動界人事

▲東京帝大籠球團의高橋마네저와 相馬主將은 籠球支部幹事日良牧山兩氏案內로 人事次八日本社來訪



日立モートル
三相用
單相用
反撥起動式
分相起動式



日立電氣ポンプ
淺井戶用 壹号自動式
深井戶用 參号自動式 五号自動式 六号自動式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內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名古屋市中區新柳町六ノ三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 大連市紀伊町八五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五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一二〇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支店及出張所（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

문등병
으로十年간困難한들功能 眞正한家傳의良藥이今全快 困難한분에右良藥의內容病理說明書及全快者의感謝狀添付 無代送呈함
大阪市新川三丁目六五五 大福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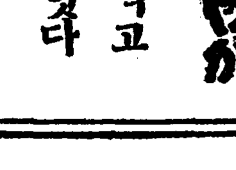
珍本 寫眞圖畫
◎秘戲의極致描寫！悅樂會！ 珍本은四六版大冊寫眞과畫는各十二枚組A五圓、B三圓、見本目錄卅錢
京都西陣局區板倉町 振替大阪七四五九四 自然社

銀地金特別高價買入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今夜八時 J、O、D、K
高福壽君、李蘭影孃의放送
來四月五、六兩日밤 京城公會堂에서開催한 弊社主催『오케-藝術家實演의밤』에는滿都士女諸氏의 莫大한支持를바더兩日을通하야 超滿員의大盛況을일우엇든것을感謝합니다 그러나 못처럼오시엿다가 入場을못하신분이 오히려 入場하신분의 四五倍나되게되여 弊社로서는 그未安함을마지못하야 當夜의遺憾을多少라도補充할가하옵고 今夜八時에首腦歌手의流行歌放送으로서 諸賢의厚意를報答코자합니다
日本오케-蓄音器商會
京城支店文藝部

六百万朝鮮어린이의絶対支持
아이-좋려!! 어머니、어제밤「아이생활」을한번손에들엇더니、어떠케재미롭든지 꿈 바밤을새여 끗까지읽고야 말엇서요 玉順
月刊 아이생활 四月號 九日出來
그림 一보……崔雨潮先生筆하와이 조선어학교졸업생、독자들의얼골
曲譜 봄과가을、獨逸民謠……具王三編
社說……鄭仁果
修養 빈궁의원인……金禮濟
歷史 이조의쇠약한까닭……金允經
野史 鍊成江美人……柳光烈
科學 潛航艇……崔奎南
師制 풀로비쓰……金保麟
智慧 사람은무엇하려나나……咸大勳
創刊九週年記念懸賞入賞者發表
漫畫 아푸되카여행……金珍洙
小說 小英雄……方仁根
小說 순례자의가는길……班禹巨
小說 봉황……丁支海
童話 貧民窟……崔禮楠
童話 시계업는동내……任元鎬
童話 거룩한잔……崔仁化
세마리개……金初鎭
新春讀者文藝……朴龍喆選
傳記 사무엘、짠손……崔鳳則
童謠 讀者와記者 俱樂部其他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振替京城一一五一五 아이생활社
一年一圓·一部十錢·支局大募

當る九日特別大公開 皆樣御待ち兼ね四年振りの新作ロイドの大喜劇 堂堂大公開!!半島劇界に一大破紋を倍起せる問題の名篇『唐人お吉』堂堂第二週續映!!
フォックス映畫社特別提供 ハロルド·ロイド社超特作日本版
喜劇王 ハロルドロイド主演
ロイドの大勝利
原作 クラレンス·ブデングトン 監督 サム·テイラー 撮影 ワンタ!·ランデイン
ジョージ·ペピエール氏 ウナ·マーゲル孃 助演
新興キネマ超特級全發聲
唐人お吉
原作 川村花菱 脚色 川口松太郎 監督 冬島泰三 錄音 オリエンタルシステム
お吉……水谷八重子 鶴松……澤村田之助 新治郎……伊井友三郎 ハリルス……早川雪洲 他藝術座一流總出演
永樂町 電本三〇二 中央館



國手라도 はれやか 늘먹고 잇다

四月六日より短期特別公開 五日間に限り絶對日延なし
イノエイヴ·ハムモンス特別提供 珍優ラリー·ニーモン主演說明總出演
頓珍漢ラリー
特別速成美顏術專門の美容院をはじめた頓珍ものラリーの脫線振り
大都映畫社特作現代映畫
原案河合德三郎 監督吉村操 寒絲路、飯田映二主演映畫
心燃ゆる女性
大岡怪童、片桐敏郎、五味國雄、稻葉京久雄共演
弘法大師恩忌千百年記念製作 眞言宗各本山各寺院後援
製作顧問 橋本壽 製作指揮 中川紫朗 原案 志波西果 監督 稻葉蛟児
弘法大師御行狀記
關門啓輔、尾上華文 新波快輔、久未讓 松浦榮技、瀧澤靜子 共演
櫻井町 本町 大正館

학교졸업전후하야 부디몸조심하시요
처녀들이걸리기쉬운병

녀고보를 졸업하기 전후에서는 처녀들에게 여러가지병이 만흡니다 더구나선병질(腺病質)의 녀성은 이때에 병이걸니기가 쉬웁니다

×

그런데 이러한녀성이 제일 이삼십세도이상분의미영이매일 계속되면 만성복막염을 일으키게되는데 이것은 주로 결핵성인것으로 처녀인 경우에 만흡니다. 이러케되는것은 벌서 나팔관결핵(喇叭管結核)에서 난소결핵(卵巢結核)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도 잘알기어려운것으로써 이상이업는동안 계속되고 이상이업는때 도는 월경때에 아야 발열을 하게되면 전문의에게 정밀한 진단을바더야 합니다

×

이러한것을그대로 두어두거나 직업을가지게되면 그만 생명에까지 위험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

그럼때이 병의치료는초긔면 늑막염(肋膜炎)보다 훨씬 수히 나흐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

그리고 처녀들에게 만흔 「거드랑내」를 주의해야합니다 「거드랑내」는 선천적인것으로 이것도 수술을하거나 「렌트겐」으로하면 잘 낫는것이므로 주의해서 이런불쾌한냄새가나서 다른사람에게 불쾌한감을 갓게하지 안토록 주의하여야합니다

×

그리고 위ㅅ병을 주의해야합니다 생기발랄한 처녀로서 위ㅅ병이 나면 자긔도 불쾌하려니와 또 다른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것이므로 충분히 주의해야합니다

×

더구나 직업을가지신분은 위ㅅ병, 폐결핵, 신경쇠약, 코ㅅ병가튼것을 주의하셔야합니다.

×

건강, 명랑을 목표로 처녀들은 좀더 생기잇게 이봄을 마지하십시오 (大學病院產婦人科 金鶴俠)

家庭

봄거리에 늘어가는 귀여운 遺失物
구경나왓다애기일코가는어머니 무엇에 정신팔리나

애기네를다리고 거리나구경터를 나오섯다가 분비고복잡한바람에 고만애기네를 일허버리시는수가 만흡니다. 애기를일흔부모들도 마음이조리고 가슴이타겟지만은 그보담도부모를 일흔애기네가 더안탑갑고애처로운 일입니다 요사이가리발근세상에 설마무슨일이야 잇겟습니까? 구경차저오지를안켓습니까? 그러나세상닐이란반듯이 그런것도아니니 사내보담 계집애들은 뒤한층염려가업들안습니다. 부모되신분이 각별주의하서서 일치안토록하고 또일더라도쉽게찻도록 하야두시지안하면안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소용이업는닐

평소부터 애기네들이 말을하게될때부터 제성명은물론 댁의동네이름과번지ㅅ수라든지 부모의성명을 잘아리켜주서야합니다 한번이나두번쯤아리키다가고만두어서는 소용이업는닐이라 능히행하게외우도록 공부삼아아리키서야합니다. 또아기네의머리란 극히단순하야 아랏든것도 한참지나서는 흔히이저버리는수가 드물지안습니다. 이마쯤하게외우는그것도 다시때때로강을바뎌보시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뿐이아니라 미리부터길을일허버릴때는 어떠케어떠케하라고 잘이약이를해서 들려주시는것이 조흡니다.

물론애기네가 이약이한고대로는 실행하지못하더라도 다소의 도움이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말을못하는애기네나말이아즉어울한애기네야 어대무엇을가리처줄수잇습니까? 그런애기네를일허버리는것이 제일만코또큰닐이아니오니까? 그러나그런애기들은 조그만때에다가주소성명을써서

아조어듸다가

채워두는것이조흘듯합니다. 만일패가개패가타서보가가실커든두엇루맥이안가는데 실로떠서두시는것이조치안할까합니다.

그러나일허버리어노코서 찻기쉬도록한다는이보담은 애초부터일허버리지안토록하는것이 더조흔일이아니오니까? 나종에찻는다니그동안은 오작이나고생이됨니까? 애기를일허버리는원인은 대개애기네가해망업시 부모를떠나서 쪼차다니는것이아니라면 그부모가정신업시 애기를이저바리고돌아다니시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애기네가해망업는것보담은 부모가정신업는것이더크고중요한원인이라고 볼것입니다. 그러니까애기네도부모의손을떠나지못하도록 단속을하겟지만 부모되

부모자신부터

은 도애가네를잇지안토록 늘정신을 차리고게서야합니다. 만닐정히분비고복잡하야 어떠케할수가업다면 차라리업거나안고서다니시는 것이제일입니다. 그뿐이아니라사람이덜끈만하모히는장소나 좀위험하고재미업는장소에로 애기네를달고나오시는것은 찬성하기거북한노릇이올시다. 그런데는 애기를다리고나오시지말거나 그려치못하면 부모조차도나오시지 운는것이 차라리낫지안할까고생각합니다

×

엇지다가애기를 일허버리게되시거든 공연히 황당하게서두르고 급급히 뎀비시지말고 냉정히차저울방법을 생각하서야합니다 애기를일허버리는장소로부터 애기가 갓갑만한 물품을차저다니며길까 상점과 가튼데서 찬찬히물어보되

의외로왕청난

곳에가서 것기도하니 꿈록이들닌형편을 하해서 고루루다녀야합니다. 물론그보담도먼저 가까운 파출소에가서 말해두는것이 조흡니다. 그래야 경찰서에서 애기를발견하더라도 누구집의 애기란는것을 곳알게되는것입니다.

家庭醫學
아해를못나어요

問 저는 금년이십사세이온대 사년전부터 대하중이잇서든 약을먹어엇습니다. 조선당약도 먹고 命의母와 『오기나구』도 먹어엇습니다 어떤약에 효험을본지는몰라도 십분지륙은 나은것갓사오나 완치가 되지아니하야또 다른약을 먹어볼까하는데 대하중에는 엇던약이 제일 효과가 잇습니까 자세히 하교하야주십시요 그런데 대하중으로 그런지 엿태것 생산을못햇습니다 진찰 병원에가서 진찰을 바드라앗사오나 엇전지 마음에병원에서는 대하중을 못나슬것만갓해요 제일 생산을못해서 걱정이옵시다 (光州一女性)

答 대하중은 여러가지 부인병으로인하야 생기므로 각긔원인되는 병에따러서 또한 치료법도 덜드것입니다 내복약으로만 대하중을 곳치기는 어려우니 부인과전문의의진찰을 바든후에 치료를밧는것이 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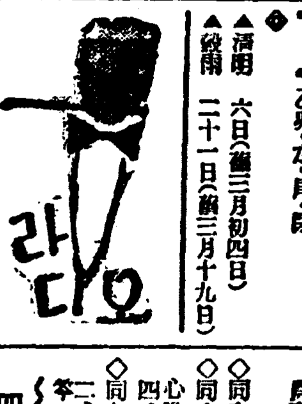
家庭 메모
뜨물로세수하면 살결이고와진다

아침저녁으로 쌀물씻스실때 맨처음과둘재ㅅ번에밧는뜨물을 세숫대야에바다 하찬트엇다가 가라안칠것은다가라안고우에 말가케된뜨물로세수를하면 살결이하ㅡ애집니다 단순히 얼골만하애질뿐만아니라 얼골에 계기름이 흐르는분은 이러케하면얼골이 깨끗해지고 게기름이 내소사 번적번적하는일이업습니다 얼골을씻스신다음에는 맑은물로 또한번씻습시요 바다에가라안진눔파함께씻스면 도리혀살결이거치러집니다

曆

四月九日(火) 舊三月庚辰(大)(七日) 乙卯·水·尾·閉
▲滿潮 六日(舊三月初四日)
▲發雨 二十一日(舊三月十九日)

라디오



四月八日(月曜)

◇午後六時 하ー모니카獨奏 李和音
◇同六時二五分 産業ニュース 經濟解說 貨幣의本位制度 朝鮮日報編輯次長 咸尙勳
◇同七時三〇分 講演(商工政務次官 勝正憲) 譯講 日本貿易의狀勢及其將來
◇同八時 流行歌 高福壽 李蘭影 伴奏 오ー케패밀리뮤직
◇八時三〇分 音律 鷺山會像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瀟湘八景 二、唱劇調 赤壁歌 曹學珍 鼓手 池龍九

四月九日(火曜)

◇自午前九時三〇分 至同一一時四〇分 (東) 特命近衛師團觀兵式御光景 ー代代木練兵場으로부터中繼
◇午後〇時五分 南道歌謠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高飛燕 朴山月 大쪽 朴鍾基
◇自同一時 至同二時 (東) 滿洲國皇帝陛下奉迎日滿國歌合唱會 ー明治神宮外苑競技場으로부터中繼
◇同二時 衛生講座 春季와眼疾 趙晟榮
◇同六時 童謠 一、齊唱 고향의봄 二、同 해바라기 三、獨唱 봄편지(金貞任) 四、同 참새(同) 五、齊唱 퐁당퐁당 六、齊唱 무명조 七、獨唱 낫에나온반달(崔玉基) 八、同 두메기(同) 九、齊唱 바다가에서 十、끌락대장 徐平會 作歌 洪蘭波
◇同六時二五分 라디오學校 童劇의鑑賞 (一) 金 鳳 冕
◇同七時二〇分 農村講座 春節農事一般 (一) 京農教授 金 雄 珏
◇同八時 漫談 金狂 虞 秋 聞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 一、愁心歌 二、楚漢歌 三、山念佛 四、난봉가 金 振 鳴
◇同九時 歌詞 一、相思別曲 二、乾坤歌 安翰仙 金花香 大李 金永根

四月十日(水曜)

◇午後〇時五分 하와이안키타ー音樂 一、미기말리…칼할레作曲 二、나의사랑…칭作曲 三、카아노이…同 四、푸알스·알쓰 五、나니알에리후…렐레로혼作曲 六、하하 미네 七、프뒤든왈스…클레이作曲 八、카아·레이·알로하…킹作曲 金뫨燮 同鄭明來 우크렐레와기타、鄭永來
◇二時 스포ー츠講座 朝鮮女性과體育(一) 金 義 衡
◇同六時 少年美談 동무를위하하야 李 亨 稙
◇同六時二五分 라디오學校 兒童劇의鑑賞 (二) 金 鳳 冕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 春節農事一般 (二) 京農教諭 金 雄 珏
◇同八時〇分 京畿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博物歌 三、船遊歌 四、將棋打鈴 韓牧丹 金蓮玉
◇同八時三〇分 소프라노獨唱 一、실벨링…신딩作曲 二、落花岩…梁田貞作曲 三、아베마리아…구노ー作曲 四、솔베지의노래…그리ー그作曲 四、歌劇『탄호이저』中에서 엘리자베트의祈禱…빠ー그너作曲 六、歌劇『마담버터플라이』中에서 어떤개인날 푸치니作曲 朴景嬉 피아노 伴奏 金永煥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제비路程記 姜太弘 鼓手 韓成俊

京城撮影所作品 洪吉童傳完成

그동안 경성촬영소 (京城撮影所)에서는조선의야사홍길동전 洪吉童傳)을촬영중이든바 완성되여 (尹白南)씨감색 리명우(李明雨)김소봉(金蘇峰)씨의감독 리필우(李弼雨)씨의 촬영이며 수만흔 엑스트라를써다한다 (사진은홍길동전의한장면)

春風 (49)
夕影 作·畵

이때에 차집이 겨서상을들고 드러와서 그들이 상을바덧다그들은 상을놀리자 자긔들의 지난이야기를하여다 영옥의이야기에 영화가갈렴하앗다 저녁때가되여서 그는도라가다 래식은명화할치저가자다행히 명화이가집에잇서서 명화이에게 자긔의 사를말하고 그이면의앙이대보아다 『여보게 우리도 사업을좀해보세 돈은써야 버치나는것일세 돈을좃스게 이건두리사업도 아니니까 손해를보다해도 남는것이 잇슬것이아닌가 술만먹고 지낼것이아니라 무슨긔관이라도 세우고 거기다가 우리의 생을맛기면 그래도세상에난 보람이잇슬것일세 우선자네가 돈을내여노호면주(株)를 모호기가쉽겟네 남이내여노키만 기다리고잇다면 도저히실현되기가어려울것일세 얏가내가말한 그사업을좀해보세 넷날부터 우리가 꾸든꿈을 실현해보자는말이야 그일이 자네하기에닐러것입세 자네의말은 어떤가』

『글세 내생각에는 잡힐것가태 보히지안비 엣날에는 그저 귀분에떠위서 그랬거니와 지금은 그때와도달르고 세상이 너무도 강팔해져서 아모리조흔사업이라도주관이맛지안흐면에 손을 내명사람이잇겟나 나야하번 돈을들여노하다가 그대로 업서진다해도아모일업지만 애는애대로쓰고아모효과가안난다면 안하니만갓지안흔일일세 다시 생각을해보게 모두를 무어무어한다고든만 흡주듯 주워버린일이 좀ㅣ만허쳐나 내가 자네의사를 존중하지 안는것은 아닐세 다ㅡ조흐한일이지만 섯불리 덤벼드렷다가는 세상의조소를 살터이니까 그런 중대한일을 지금당장에쾌히 용락할수는 업는일아닌가』

『자네말도 올흔말일세만은 겁부터 집어먹으면 될일도 안되네 오늘 당장에 나서란 말은 아닐세 명화를 두고라도 생각을해보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나서 무엇을 배왓다면 세상사람에게 찌치는바가잇서야하지안켓나 무엇을 배워다는 사람이 모두를해안지면 그건안배웟드니만 못한일아닌가 길히생각해보게』

『그러치 생각해보지 나도생각하것지만 날마다 맛나서거기에대하야 우리가연구를해보세 생산이업스면 무슨사업이고 작난예지나지안흐니까 첫재 거기에해서 기필생각해보아야 하겟네 한편으로는 돈버리도되고 또한편으로는 사업도되고해야 종업원들의 월급이라도 월급답게지불할수가 잇슬것이아닌가』

『올아이 그래야되겟지』

래식은 오늘에는 여기에 그치기로 하엿다 그래서 그는명화이에게서 나와서 영옥이가기다렷스리라하야 영옥의 집으로 왓다

『어제는 웬일이서요 퍽기다렷는데요』

영옥은 말은아펏지만 평소의기색대로 꾸며여보혀다

『참실례하엿습니다 어느친구를 맛나 붓잡혀 단이기때문에 그만바게서 잣습니다 그동안아모일업섯지요』

『네ー아모일업섯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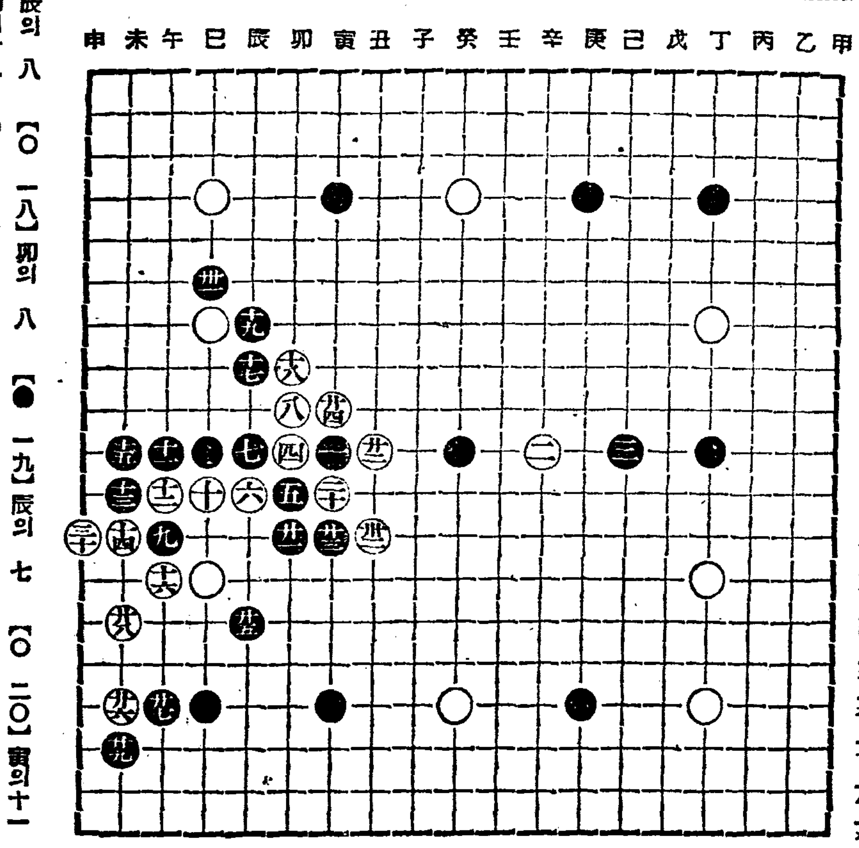
래식은 저녁을먹고 몸이피곤하야 자리를 펴고 드러누어잡이드럿다 영옥은 명상 아프로는 종오와는 다시살가실코래식은 아모래도 자긔와동거할생강은면지안는모양이니 지금의마음의고통으로는 자살이라도해야하겟스나 그것도 못난것가탯다 이라면자긔도 죽어야할때까지사는것이 사람이라도 죽어야할때까지 사려보아야하겟다고하엿다 길에서 거적떼기를쓰고 몸이썩어가는 거러뱅이들도 그들의맘에는 사는것보담도 죽는것이단것으로 알겟지만 괴왕바든목숨을 제손으로끈치는못하는모양이다

그리고보면 이러케사나 저러케사나 다ㅡ한가지거래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더럽다는것일가 결국뒤바구어생각하면 그게그것이엿다ㅡ가자ㅡ

나를나흔 고향이라도 바더주는이업스면 내고향이아니다 산천이수려하고 어써구한 금수강산이 어떠타하드래도 나를반기는이 이업스면 일망무제한사막에다름것업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丁奎春
黑先 李潤鎔



【●】一七 辰의八	【○】一八 卯의八	【●】一九 辰의七	【○】二〇 寅의十一
【●】二一 卯의十二	【○】二二 丑의十	【●】二三 寅의十二	【○】二四 寅의九
【●】二五 辰의十四	【○】二六 未의十六	【●】二七 午의十六	【○】二八 未의十四
【●】二九 未의十七	【○】三〇 申의十一	【●】三一 巳의六	【○】三二 丑의十二

◇蔡極文氏評日 黑辰의八은 中央進出에 相當한으로 看做되고 辰의 十四點은 子의十二로 到着함이 可할듯하다 白은十三將稱內가 未完함을 愛惜하야 未의十六으로 飛着하니 黑은 午의十六 白은 未의十四 黑은 未의十七 白이 申의十二로 壓하니 先手가 黑에게잇난지라 黑이巳의六으로 白將一點을 脅威하고 白은 中央勢力挽回次로 寅의十一로 黑을斷豫하야 丑의十으로 黑一點을 呑取하니 挽布範圍가 均等으로보인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소아양약 히야기응환)

愛兒를爲하야 母性의苦心에應報된 하늘이주신 育兒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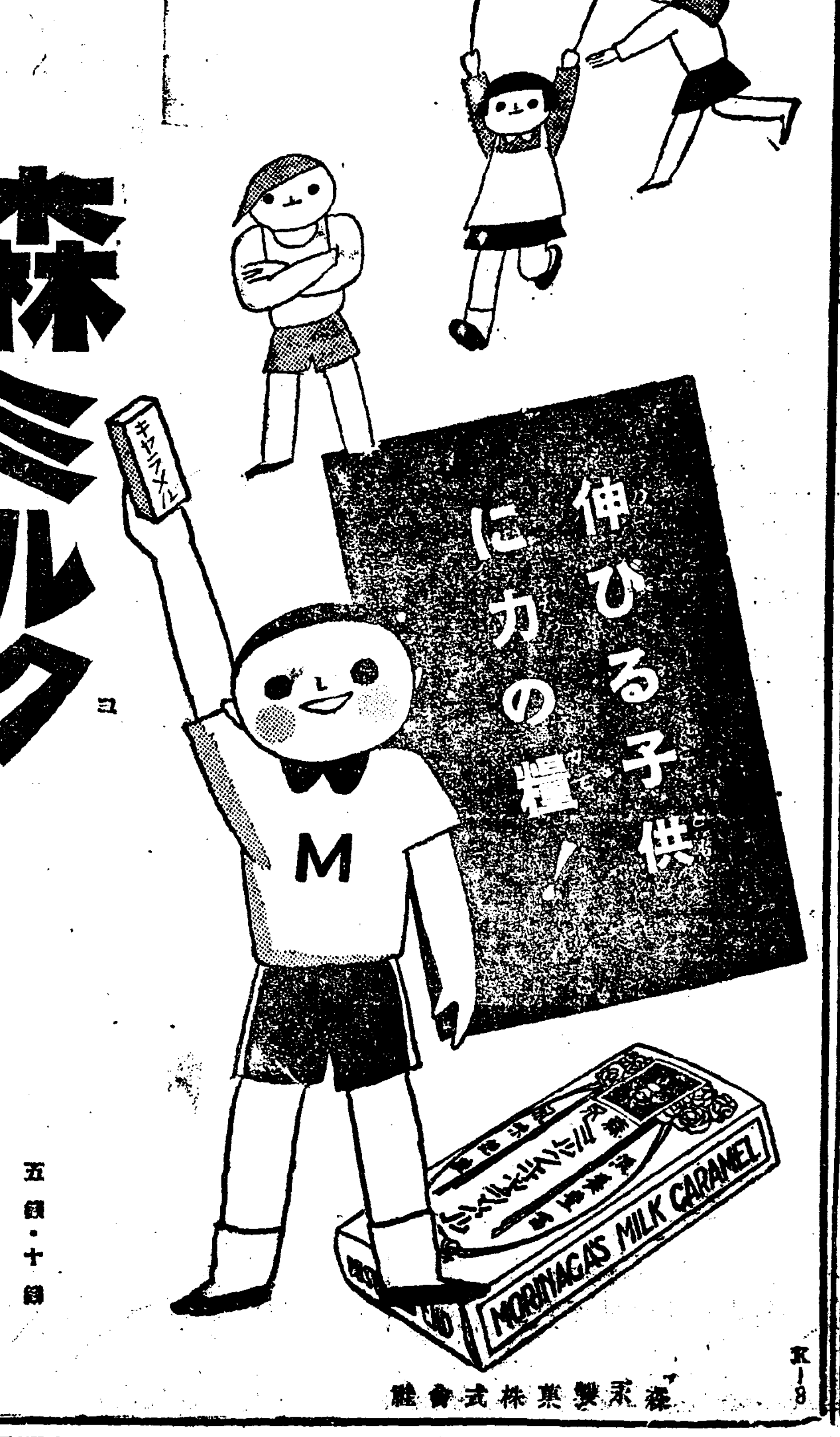
救急에 경련, 기절, 혀기其他발못의 急病과容態의急變에
治病에 간기, 보채고, 열난때, 위장장해, 젖투정, 록변, 소화불량, 식상, 마마, 홍진
保健에 밤에울고, 하독, 안색납부고여윈데, 기타선천적으로약한애에

藥價 二十錢부터 十圓까지 德用包 一圓

無代進呈 育兒의友 朝鮮日報名記入申込

本家 大阪天滿橋 樋屋合資會社

10-K-2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모리나가 미루꾸 갸라멜)

五錢·十錢

森永製菓株式會社

K-8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려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此藥은全鮮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三十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四月六日부터向十日間晝夜三回大公開!!
아라비아나이트實錄는열니다
英國고몬부리티쉬特作全發聲
黃金篇
巨匠월터ー포ー드監督作品!
朱金昭 日本版
쪼ー지로비ー氏 안나매이온孃主演
아라비아나이트의豪華! 에로지슴과獵奇의大加藍이여ー는神祕의世界여기에七色의무지게에걸이여 白을濁解식히는音樂의情調가흐르며 妖艶美姬! 奴隸가춤을춘다 여기에東洋古都冒險의一席이열니는아리비아나이트에서取材한豪華幻想劇!
米國RKO會社特作全發聲日本版 랄프인스氏監督作品!
獅子奮迅
快漢비루보이드氏主演
도로시윌손孃 찰스직그엘氏助演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吉村監督作品
戀は海邊で
大岡怪童 琴路美津子 律淳三郎 北見礼子 大共演
貫鐵洞 光電 二三 優美館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63)

湖岩

徐四佳와 金佔俾

四 佳와 佔俾은모다成宗時代의 大家로 李朝最盛期를 비낸文章들이다。그러나 兩家의學問系統으로 말하면 갓지아니하야 四佳는 官學派에 屬하고佔俾은 儒學派에 屬하며 詩文에잇서서도 四佳는 詩를 치고佔俾은 文을 친다 그러나 佔俾은 文賤이 아니라 詩도 용하야 오히려 四佳보담 압선다고 하는이도 잇다

近代名家 申紫霞는 四佳詩中에서 閑鴨遊鱗의句가 眞景을 잘 햇다고 크게 推稱하엿스니 그詩全首는 이러하다

茅齋連竹徑、秋日艶晴暉、果熟甕枝重、瓜寒著蔓稀、遊鱗飛不定、閒鴨睡相依、頗識心身靜、棲遲願不違。

情 調는 어대까지 淸雅하고 閒靜한것인바 특히 第三聯의游鱗閒鴨句가튼것은 詩中有畵의 妙가잇다 海東繹史를 보면 列朝詩集에는 四佳의春日詩를 뽑앗스니 그詩로 말하면 아래와 갓다

金入垂楊玉謝梅、小池新水碧於苔、春愁春興誰深淺、燕子不來花未開。

이詩도 매우淸艶하야 實景의妙를 어덧다 大東詩選에 뽑처옴으로 적힌 四佳의 五言絶句인 睡起詩는

簾影依依轉、荷香脈脈來、夢回孤枕上、桐葉雨聲催。

라고하엿다 이詩를 一味하면 사람으로 閑鴨遊鱗 等을 엄으키거하는바 잇다。四佳의 詩中에는 有名한 靑春興、靑雷聲 및古意 等이 잇지마는 여기는 省略하고만다 四佳는 이름이 居正이니 四佳는 그號이다 外孫으로 二十六年동안 文衡을 典하엿스며 成宗의命으로 朝鮮最初의 統一的地誌인 輿地勝覽과 東國通鑑을 編成하엿고 古今詩文을 抄選한 東文選도 맨드럿다 그가 叢述한 漢詩批評으로 東人詩話는 李仁老의 破閑集과 崔滋의 補閑集과 잇는 以後 李朝에와서는 初有의書이다 그러나四佳의詩를 알려고하면 그의詩文을 모흔四佳集을 보아만 하겟다。

金 佔俾은 佔俾佔齋이니 이름은 宗直이요 佔俾齋는 그의號이다 吉冶隱(再)의 學統을니은金江湖(叔滋)의 아들로 그門下에서 後來名儒가 만히 일어낫다 그러나 佔俾齋는 道學者가아니요 文章人이엿슴은 退溪가 벌서 論斷한바이다 燕山戊午士禍에 禍가泉壤에 미처 도라간지十餘年뒤 佔俾齋의 遺文을 내여 剖棺斬屍의 極刑에 處하게되엿슨 비록 그後啓蒙이되엿다 하드라도 學者詩人으로서 참아 當하지못할 悲慘事이다。佔俾齋의詩는 韓愈를 배워 格調가 豪邁雄深함으로 近代詩人中第一이라 그를 推崇하엿다 그의 仙槎寺詩의 第一聯인 鵝鵡賦代筆、胡鐵佛天壁는 바로盛唐을 逼한다고

紫 霞는 激賞하엿스며 또 觀禪寺詩의 第二聯인 上方鐘動龍眠, 萬竅風生鶴鍛猊, 은 바로 孤峯으로 宇宙를撑立한것과가튼 그 詩格이 沈奢하다고 紫霞는 크게 激賞하엿다 그러나 吾人의 眼目에는 佔俾齋의 東都樂府 七首인 會蘇曲、憂息曲、鵄述嶺、怛忉歌、陽山歌、碓樂、黃昌郞等이 가장 조화보인다。이들은 樂府로서도 좋을하거니와 史詩로서의 朝鮮的 情調가 넘치는데 더욱더 흥취한 情操가 잇슴을 보겟다 지금 鵄述嶺詩를 一例를 들진대

鵄述嶺頭望日本、粘天鯨海無涯岸、良人去時但搖手、生歟死歟音耗斷、長別離死生寧有相見時、呼天便化武昌石、烈氣千載干空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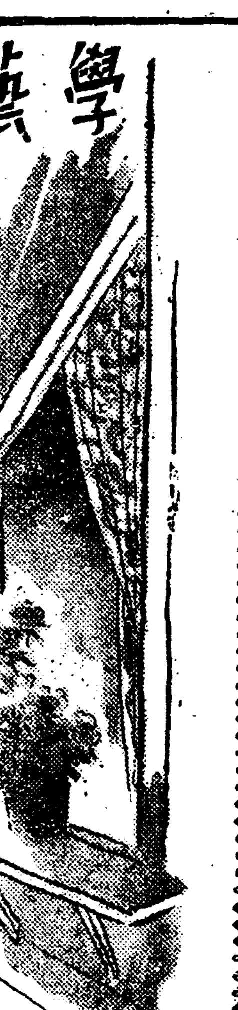
이얼마나

凄 凉悲惻하며 寒惻動人하느냐 이밖게 晉金剛山登日出詩도 有名하지마는 여기는 最後로 卅亭樓詩를 紹介하고 끗을 막고저한다

雪擁寒梅雨後開、碧時容易覆時難、早知不入時人眼、寧把臙脂寫牡丹。

이詩는 一般人이 흔이 口誦하야 相傳함으로 누구든지 잘아니바이족 贅論을 要치안는다。

學藝



D·H·로-렌스 그의生涯와藝術 (三)

崔載瑞

우헤도 말한바와가티 로-렌스의 아버지는 一家의平和의破壞者이엇다 이술망단이男便에對한어머니의 失望이 漸次로 俗惡로變하야감을따라 어머니는 子息들을다만子息들서뿐이안이라 거의愛人으로서 사랑하게되고 또아들들도 아버지를미워하야 그를

嫉 視와顏瞬의구렁에 박차너면서 어머니와 손을마조잡고 悲慘한 勞働者의生活로부터 智識階級으로헤여나가려고 몸부림을한다 그리고 作者로-렌스를 代表하는主人公 포올은 어머니의사랑을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正確히感受할만한 敏感한小年이엿다。다음一節을읽으면 이點을大綱짐작할것이다。

『포올은 어머니와가티 자기를 즐겨하얏다。衛生學者들은 別別말을다하나 亦是 잡이란 사랑하는사람과、더부러할때에 더욱

完 全한것이다。몸의훈기、精神의安定과平和、서로몸을 대는데서 생겨나는 말할수업는安樂-이모든것이 잠을 엮어노아서 몸과精神이 完全히休養할수잇는것이다 포옹은 어머니에게의지하야 잠을자고 病도 퍼닷다 그리고 늘 잡을못들는 어머니도 깁히잡이들게되엿다』

그러나 아들들이 次次戀愛를 깨닷게되자 母子의關係는 到底히아즉까지와가티 單純할수는업섯다 長子윌양의戀愛事件은 멀리故鄕을떠나

倫 敦서 이러나기 때문에 그報告도 外面的이여서 아들을 빼앗길것을 두려워 하는어머니의 焦燥도 簡單히 描寫되얏지만 가장사랑하든 포올의 戀愛事件은 아들을 빼앗기지 안흐라는 어머니눈압헤서 數年동안을두고 繼續된다。이것은 흡뜸한 一種의三角關係인同時에 그 一角이 어머니라는點에잇서 그 殘忍性은 目不忍見이다。

아야가는바귀여 家庭에反逆한푸리에다는 로-렌스와더부러

二 個年間의 放浪生活을한後一九一四年에 結局離婚이、成立되야 倫敦에서 로-렌스와結婚하얏다。그러나 두사람은 그야말로 濟中에無一分이엿다。그

다

러나 로-렌스의小說은 처음부터 社會의 歡迎을바들만한 性質의 물건은 아니엿다。그의셋재번 小說『아들과 愛人들』을 본 出版業者는『내가 읽은中에第一醜惡한冊』이라하야拒絶하얏다한다。이리하야 로-렌스가아직까지 바더온

稿 料는 令하야 不過數十磅이엿다。그中에도 그病勢는 甚하엿다。그는 無雖한 小說家서서 生活資를 어드려고 몃번이나 생각하야보앗다。그러나 그의 性品이 許諾치안헛다。『나는 내가 熱意를가지고쓰고십흔것外에는 쓸수업다 그리고 내가 現在에쓰고십흔것은 男子와女子의關係이다 結局그것은 今日의 問題-即 새로운男女關係의樹立다시말하면

兩 性間에存在하는남은關係의再調整이다』라고 그는말하얏다

이때에 벌서 로-렌스는 三十이가가워다 그의內部에잇는思想은 漸次로組織化하야가다 그러나 그의思想은 너무도超世間的이엿다。現在社會의政治界와習識界를分割하고 잇는모든黨派의 標語-國民主義와 社會主義와 國際主義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基督教와 異教-이모든것이 그에겐 아모興味도업는名詞이엿다 그가보기엔 이모든 論爭이모도다 物質的

論 爭에지나지못하는것이다 웨그러냐하면 그것은 모도다 自我의愛에서 생겨나는것이니가。이點에잇서선 基督教도結局物質的이다。그러나 로-렌스의關心하는바는 自己의 精神의 眞理를알고 그와 同時에 다른 사람의 精神의 眞理를알라는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眞理를 相互 通하야 알려고하엿다 이런點에잇서서 로-렌스는 몸시宗教的이엿다 다만 그것이몸시

奇 拔하고神秘하엿슬뿐이다 그는 一九一三年에 다음과가치 써서 親舊에게보내엿다 『나의偉大한宗教는 血과肉에對한信念이다 이것은 理智보다도 賢明한물건이다 우리는 마음가운데서 잘못하는 수도잇다。그러나 우리의피가 늣기고 밋고 말하는바는 늘眞理이다 理智란 말,馬)로일르면 굴비에 지나지못하는물건이다 智識에對하야 나는무슨相關이잇스랴? 내가바라는 모든것은 理智나道德이나 其他모든것의干涉에拘束되지안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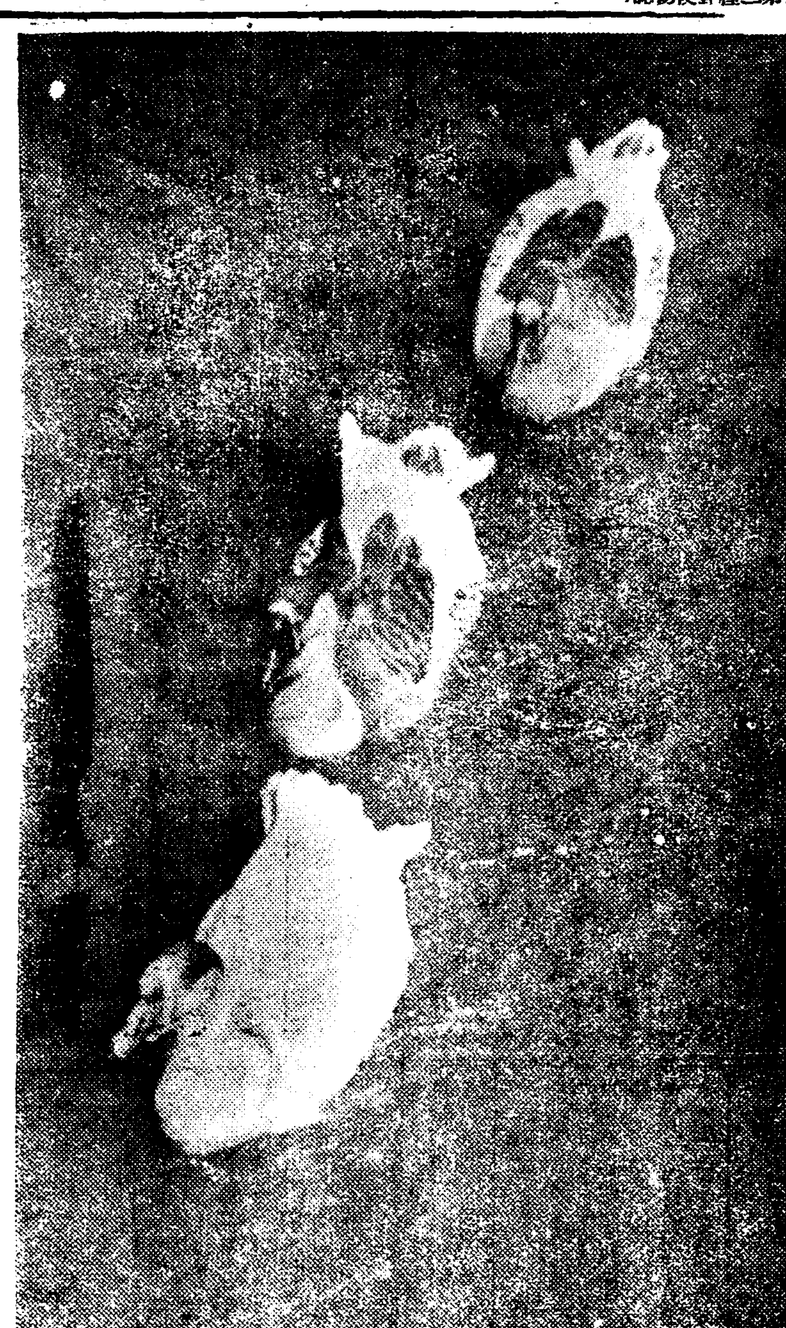
直 接으로 나의피에 應할수잇슴이다』이가튼思想을 로-렌스는 그의새小說『무지개』(一九一五) 가운데發展시켯다 이小說은 暗黑과光面의두無限過去와現在의두永遠을 連結하는 性의무지개다

『아인슈타인』의 獅子吼

猶太人의民族性을保持하라

【뉴-욕-發 歸令郵信】 一世의碩學알베르트, 아인슈타인博士는 猶太人인때무에祖國에서 쪼겨나와 財產도沒收되고 現在는아메리카에 亡命하야 나치스에 對한忿懣을講演과科學的活動으로 양가품을하고자 애쓰고잇는바조어번 全米猶太人協會婦人部大會에 臨하야 猶太人은 어듸까지든지 그民族性을保持하지안으면 안되다고 悲愴한演說을하엿다 그一端을紹介하면

『獨逸에잇서서 猶太人의 經驗은 어듸까지 그民族的獨立性을 保持하지안으면안된다 그러치안으면 悲壓에 悲慘한運命으로 떠러지리라고 가리키엿다 事實獨逸의猶太人은 國際的猶太人社會의 觀念을이저버리고 에서 獨逸人의風習을원숭이 뺨으로 흉내를 내여 그 民族的根源을 押隱하라고하는것이다 民族的傳統과 獨立性을 犧牲하고서 어든 그처은 利益은 나치스의 政權掌握에依하야 一朝에雲散霧消한것이아니냐



●……오리도 봄물이조하라고 왝ㅣ왝ㅣ왝……●

聽診器紀行 滿洲ㅅ벌을向해 (1)

金晟鎭

第一信

지금世人의耳聽은모다 滿洲에로集中되야잇습니다。政治的乃至經濟的은勿論이오 말아서學術上으로도 各方面에汎하야 研究調査가 進行되야잇습니다

京城帝國大學에서도 滿蒙文化研究會라는研究機關이 設立되야醫學部에서는 人類學、風土病、漢藥等의研究에 着手하고잇습니다。

이리하야 從來에는 研究調査의길이 빠치지못햇든 滿蒙天地의文化도 漸次로 開明될機會를어게 되것이다。

一方 滿洲에는 現在 近百萬의朝鮮사람이

居 住하야잇고 도날로 移住하는사람은 增加할뿐입니다。이가튼 在留同胞의大部分에 對하야는, 生活上 不衛과 不足이야非一非再이겟습니다만은 衛生施設의 缺乏이 直接 生命을威脅하는이만지 무엇보다도 큰問題일것갓습니다 더구나 氣候와風土가 朝鮮과는 퍽이나 달은까닭에 여러가지 惡疫과 病疾에 걸리기 쉬웁고 또 一次罹病하면 適當한 治療를加할 아모機關도 道理도 업는 까닭에與覺은 조터 잘살기때하야 그리운故國을등지고 異域까지갓다가

病 魔와 더부러 싸호다가아무노릇도 아니되고 怨痛한境遇에 이르는일이 相當히 만흘줄로밋습니다

이點에留意한 城大醫學部一部教授로부터 在滿同胞慰問巡廻診療班이 組織되야 每年一回 朝鮮移民이 比較的多數로 集團居住하고 醫療機關施設이 貧弱한部落을擇하야 巡廻診療를 施行합니다。今年이 第三回입니다。第一回에는 琿春、間島地方에가서 二千九百四十四名의 診療를하얏고 第二回는

間 島、敦化地方에서 二千三百七十名의診療를 하얏다합니다今次는 間島、濱江兩省中 圖寧線及北滿鐵道 東部線의 鐵道治線 다시 알기쉬웁게 말하면圖們서 哈爾賓에 이르는 汽車沿線中 主要部落七個處에서 診療治療할豫定이나 現地에 가보아서 形便에 依하야 或危險地帶가잇스면隨時 變更될시도몰음니다。

一年一次、더구나 단하로동안 投藥을 하거나

施 術하고는 그다음 經過도보지못하고 다음 場所로 떠나바리고 마니 決코 滿足한 治療를 期待할수업고 또 一年間의健康을 保障할수 업을것은勿論이겟습니다만은, 微力이나마우리의 誠意를 表하야 異域에서 苦鬪하는同胞를 慰問、鼓舞하고 所期事業의 貫徹成功을 促進激勵하며 兼하야 우리는 在留同胞의 生活狀態 더욱히 衛生狀況을 調査하야 다음날 衛生施設에 參考하고 또 장차 渡滿하는사람에게 注意를 줄 材料를 어들수잇다면 우리의 計畫도 全然 無意味한것은 아니라고 밋습니다。

×

診 療班組織의準備는 三月부터始作이되엿습니다 爲先 診療에從事할 醫師입니다 이것은 每年 漸次도 大學病院現職醫師中에서 人選됩니다 今次의 陣容은 다음과 갓습니다

診療班人名

班長	醫學博士教授	今村 豊
內科	醫學博士助教授	三木 榮
同	醫學士	李 義植
外科	醫學士	金 晟鎭
耳鼻科	醫學士東京	崔 益鎭
眼科	醫學士	柳 冀勳
皮膚科	醫學士	趙 永植
藥局	藥學士九州	伊東 毅

以上六名

筆 者를除하고는 모다當當한國手들입니다 우리는 數次會合하야 診療方針을 決定하얏습니다

藥品은 되도록 携帶에便한錠劑 散藥等을 主眼으로하고 水藥과 注射藥은 特別한것外에는 制限할것 外科的手術도 簡單한 切開 縫割의 程度에 긋칠것等입니다 事實 徹底한 施術을 햇댓자 徹底的治療를 못하고보니까 도리혀 新病을 어게할는지모름니다

彫塑 스켓취百人像

金復鎭 作 ‖今日文夕 影‖

安鍾元氏

氏는 養正高普校校長이라는것보담도 書道로도 名聲이잇는분이다 書畵協會의 어려운일엔氏가 勞心焦思하야 피이는때가만헛고 書道를 깨끗하게지니는데도 氏의 端雅한맘씨가 變치안는까닭이다

◇

남에게 害로운말을 하는것을 못드럿고 樂酒를드려도 醉談이 어지럽지안음도 氏의人格이놉흔까닭이다 養正校가 언제나別問題를 이르키지안음도 氏의너그러운治事로 말미암음이지니 氏가 該校에잇슴으로 繁榮이잇슴을안다

◇

몃해前만해도 氏의玉顔이 靑少年에 부럽지안케뵈ㅣ하드니 일에배달리고생각에찌드롬인지 老境에 드럿슴을 늣기게하시는同時에 이런분에게는 젊음이떠나지 안엇스면 하게한다이분이 나와가튼安氏라해서 이러케 추기만한것가티 알른지모르나 이분을아는이들에게 무러보면 내말이 헛되지안흠을 알수잇슬것이다

德壽宮美展 日本畵新陳列

櫻花絢爛인때에 李王職에서는 東京美術學校의斡旋으로 新美術品의蒐集家인 平尾贊平氏珍藏을出陳하야 來四月七日부터 一般의觀覽에供하기로되엿다

(作者氏名) 橫山大觀 鏑木淸方 池田遙邨 西村五雲 前田靑邨 福田平八郞 川端龍子 上村松園 堂本印象 菊池契月 竹內栖鳳 錦原泉峰 安田靭彦 川合玉堂 小林古徑

慶州紀行 (六)

李源朝

대체로 이壁像들의作者가 한사람의 作者인지 그러치안흐면 여러사람의合作인지는알수가업스나 한개의宗教的인藝術意欲에서

製作 된作品이 이러케도 面面이 다各各變化가잇고 個性이잇는것도 놀날만하거니와 그衣裳과 念珠의 호느러진流線이纖巧와 華麗의極致에 이르면서도 오히려 그背石의方正한게라든지 姿勢의典雅한것에 빈틈업시調和되여서 그야말로 손꾸락부터발굼치까지 아직도 昇平의血脈이通하여잇는듯한 산古典이엿다 우리가거긔에닷기는 午後가될 신는것스니까 光線關係가잇겟지마는 그壁像의彫刻을 細部와陰

이러한 古蹟을記錄하려면 다 말할수업스나 慶州에 남어잇는 羅代의 石造藝術品가운데서 이미 세상이다아는것들은말할것도 업고 다만 無名한 한개의傑作이라고생각나는것을 紹介한다면 『極樂殿』옵흔편기둥압헤 안저잇는 적은 石獅子像일것이다。이것이 엇더한理由로서 古蹟保存會에서까지 等閑히녀여서 밧갓헤내여노앗는지 알수업스나 그

獅子 의頭部가 약간 깨여젓서도 오히려 猛獸로서의 全身에넘치는 緊縮性과 凝結性이 금방이라도 살어 움적어릴듯하며 더구나 그 넷발 발톱곳헤 예치新鮮한 처음보는 나로서는 거의나도모르게 「앗」소리를 지르게하리마치 偉然하게한것이엿다。내가 아모리 肉眼ㅅ거리고하드래도 내가 입직이鑑賞한 一切의藝術品가운데서 이 石獅子像의발등과가치 高貴的으로 나를놀니게한것은 그다지만치안을 것이다。

참아 떠러지지안는[illegible] 남아 日色이 이미 黃昏[illegible]라 허는수업시 다시[illegible] 산길을거의半이나 네려오[illegible]데 지안엇다。오다가 나는 C君에게

「우리가 이러한偉大한藝術을가젓다는것은 다갓치자랑스러운일이지마는 자네갓치 여긔서生長한사람은 우리보다도 더幸福스러우이」

하엿더니 C君말이

「번데서온사람들이 모다 자네것을보힌듯이 나도愉快하이」

하고 둘이다우섯다

다시 佛國寺에 네려오니 벌서 먼데는 어둑살이 끼여온지라自動車오기를 기다리는동안에 나는 다시 그 極樂殿압헤 잇는 石獅子像을 한번 더보려고 올나갓섯다。그러는동안 自動車에 오르라고 재촉을바더서 도라오는길에車가바로 雁鴨池를지나는지라 暫間만

停留 하게하고우리는 臨海殿이라는 못가에비여잇는 樓閣에올낫섯다。

雁鴨池 고흔물결
黃昏에 잠드럿다

十二峰 허려저서
자최조차 희미한데

무심히 지나는바람은
잔듸밧헤울더라

C君집에도라오니 날연히疲困하여서 거의 경황업시 하로人밤을지낫다。

翌日이 마지막으로 도라와야할 日程이라、博物舘、鮑石亭、芬皇寺、五陵等을 낫에보고밤차로 오려고햇스나 卒地에생긴不可抗力의일로해서 그날낫에떠나지안으면 안되게 되고보니 興도식어지고 多少 걱정되는바도 업지안어서 다른데는 다두고갓가이잇는 博物舘에나보고떠나기로하엿다。博物舘은 그

陳列 과 分類가 아직도 幼稚的인未備한데가잇는듯도하나 瓦鐺과 石器等屬은 特히 考古的眼目을要하는것이니 우리네의알어직작할바가아니로되 金冠과玉佩의精巧함이란 新羅의 造型美術이 石材에서만 發達하지아엇다는것을 證明할수잇는것이엿다

마지막으로 奉德寺鐘、別名을人聲이라고하는大鐘을 博物舘직히는사람에게 特히請하여서 한번 울려보앗는데 말이울닌것이자、약간 건드린것이엿다。그러나 그餘響이 맛치 大海의잡드른물결을보는듯이우리에게 끗업는 로메의 한알을 때저주는것이엿다。千年古物를 다못보고 도라온 것을통안은 내一生에 깃거운時間이엿스며 또한 恨스러운時間이엿다。이未熟한희포를 예오라지두어슬글에나붓치노라 -了-

讀書問議

統計와施政年報

【問】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同施政年報의最近版은 어느年度版이오며 또그定價는얼마요 그販賣書店은어느곳입니다? (神奈川朴九世)

【答】 統計年報의最近版은 昭和七年度版이요 施政年報의最近版은 昭和八年度版인데 京城府太平通帝國地方行政學會(振替京城八一五)에서팔고잇습니다。統計年報는 三圓十五錢이오 施政年報는 一圓七十五錢이오나 그中統計年報는 賣切되아잇는모양입니다。(安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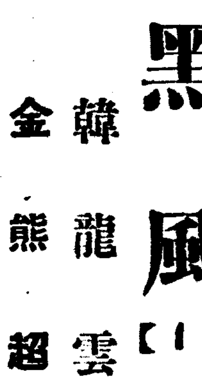
「朝鮮經濟의研究」

【問】 京城帝大法文學會發行「朝鮮經濟研究」를어대서팔며 갑은얼마입니까? (神奈川 朴五世)

【答】 城大法文學會論集의 第二冊이 『朝鮮經濟ノ研究』란이름으로나왓습니다。東京麴町區刀江書院(振替東京七三一八)發行으로定價는 三圓五十錢입니다。

黑風 【一】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지주와소작인(1)

지난 겨울의 하늘에 가득한 바람과 눈은 포학한 인군처럼 사나운위엄을 드날리어서 천지만물을업너죽일듯 하얏지마는 마[illegible]치는 그러치못하얏다 제바퀴[illegible]롤 [illegible]업시돌고잇는 태양은점점 지구에가까워지고 어대인지 숨어잇든 따뜻한 봄기운은 바야흐로 퍼지기 시작하얏다 강위의 어름녹는 소리는 잠긴고기를 놀내고 터저나오는 풀과나무의 싹들은 쇠잔한눈을 돕는다

그리하야 다정스런 봄은 항주서호(杭州西湖)가의 조고마한농촌에도 왓든것이다 논드렁에는 쑥과 소리쟁이가 소북소북 푸르럿고 밧가에는 나생이와 말맹이가 한치가량이나 자랏다 가난한 녀자들은 파리한얼굴에 때무든 옷을 입은채로 나물을 캐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두엄을 내며 가래질도 한다

「정월 대보름 달을 보니까동남은 풍년이 들고 서북은흉년이 들겟데」

「이월 한식이 되야서 꼿이일즉 피것지」

「구룡치수(九龍治水)가 되야서 물이 귀할껄」

「자네는 논을 어덧다니 고마웨」

「나는 밧이 떠러저서 걱정일세」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서로 나와다 서편집의 술익는 향기는 봄하늘을 물드리고 가래질흔사람들의 농사하는 말은 물소리에 석겻다

「편지 바드시오」

하는 체전부의 소리는 서순보(徐順甫)의집 사리분 밧게서 낫다

순보는 나와서 편지를 바드라니까

「이것은 등기편지 입니다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오」

하는 체전부는 편지를 든채로 주지안는다 순보는 도장이업서서 지장을 찍어주고 편지를 바덧다

「도장을 바더가는 편지는 돈이드러 잇다는데 누가 돈을 보냇슬가 왕한이가돈을 버려서부쳣나 어느새 돈을 벌수가 잇다고」

편지를 바더가지고 피봉을 압뒤로 뒤처보면서 안마당으로 드러가는 순보는 혼저말로 이러케 말하얏다

방에 안저서 돗보기 안경을 쓰고 바누질을 하든 순보의 마누라는 문을 열고 안경넘어로 내다보면서

「누가 돈을 보낼 사람이 잇것소 왕한이가 돈을 버려서 부친것이지 어서 떼어보시오」

하고 반가운듯이 떼어보기를 재촉하얏다

「내가 떼보면 아나 저건너서당으로 가지고가서 보아달라고 해야지」

하는 순보는 드러오랴든 거름을 돌려서 문밧그로 나간다 순보마누라는 순보의 나가는뒷모양을 보다가

「에구 무식한것도 걱정이야」

하고 방문을 불쾌한듯이、닷는다

순보는 편지를 가지고 서당으로 갓다

「선생님 이것좀 보아 주시오 편지장수가 이것을 가지고와서 도장을 바더갓는데 누가 돈을 보냇는지 모르겟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조금 보아주십시오」

하는 순보는 공손히 꾸려안저서 편지를 거꾸로 드린다

「수고가 무슨 수고요 이리내시오」

하는 선생은 우스면서 편지를 바더서 떼어보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이것이 돈을보낸 편지가 아니라 논을 떼다는 편지입니다」

하는 선생은 조금 걱정스럽게 말하면서 편지를 도로내어준다

「논을 떼다니오 누가 논을떼엇다는 말슴이오」

순보는 얼골빗이 새파랏케질리면서 말하얏다

선생은 편지를 달내서 피봉을 다시 보더니

「항주읍에 사는 왕언석(王彦錫)이라는 사람이 하것입니다 아마 그집논을 부치지오」

하고 선생은 순보의 얼골을 바라본다

紙袋製造를 副業又는本業으로

百圓前後의資本으로 月百圓以上돈버는 紙袋製造의專屬 製造者募集

僅少한資本으로 生活安定이되는 紙袋의製造는 至極히簡單하야 婦女子에도 其日부터從事할수잇다、需要는 日加月增할뿐으로 從來의手販方法으로는 到底히其需要를 充當하지못한다。그럼으로今般弊店이 提供하는製袋機는 實際스피-드時代에 相應한 便利한機械로서 弊店의專屬製造者로서 永久히 取引希望하는분에게 提供하고 製品은現金으로 永久取引을하며 萬一弊店이作業을中止 又는製品의買受를 拒絕한境遇에는 機械는 實價로서 即時買戾할것을保證함。目下 需要激增에 對한供給이 相伴치못하고 品不足을 늣기고잇슴으로 茲에製造者를 急募하야 多年間實際的經營을 體驗하고 指導的地位를 占하야 確實히 營業方針의信條로 任으로써 履行할 事項은 大小를不問하고 全部責任으로 記載의 事項은 決코期待를 저바리지안음 案內書는 無代進呈 (곳照會하시라 案內書無代進呈)

合名會社 千代田商事本店 大阪市西區本田一ノ二 電話 支店 名古屋市中區東田町四ノ一九

最新 록키-一型 高級萬年筆 宣傳奉仕特賣中 最新록키-一型 三八金本張裝具付 三號ブルベン付 定價 三圓 見本希望하시는분은 九十二錢을 振替로 前金付送하라 代引은拒絶 萬年筆 仕入은 特히 信用잇는工場을 撰擇할것이 重要함 森音製作所 名古屋市南區高蔵町三〇 各種金ペン萬年筆製作 詳細カタログ進呈 振替名古屋一八四八八番

筆生 最近男女의 分別업시 自宅에서 꼿되는 外交員 學生 勤人婦女子 最適한 副業 永久的 有望한 事業 詳細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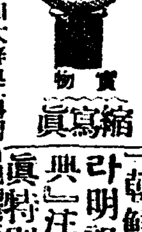
漢和의 辭典大亂賣 定價 三圓을 特別景品付로 半額提供 단지 壹圓五十錢에 投賣

特製豪華版 紙數 二千二百頁餘 總頁約 二千二百頁 總クロース 金文字入 特裝美本 堅牢 函入・裝飾的 美本 木版革畫三千餘個入 內容豐富 辭書界驚異・母子二萬三千餘 보라・熟語解釋無慮十二萬語

本辭書는右記載와如히 堂堂二千二百頁餘의大冊、特上製本으로 紙質은二十八分이요。內容은가장最新式。普通學校中卒業하고로 自由自在로차저볼수잇서 實로理想的인辭書。今回五千部限하야 急히換金키爲하야 破格의廉價로投賣합。古本이아님、昭和十年度의最新刊

●申込은至急을要함 近方에서신분은來店 當物보신後 代金引換은送料並壹圓九拾錢으로送 前金으로一時에二冊申込은送料 二圓九十錢 代引二冊은三圓三十錢 에送

無代進呈



縮寫眞 實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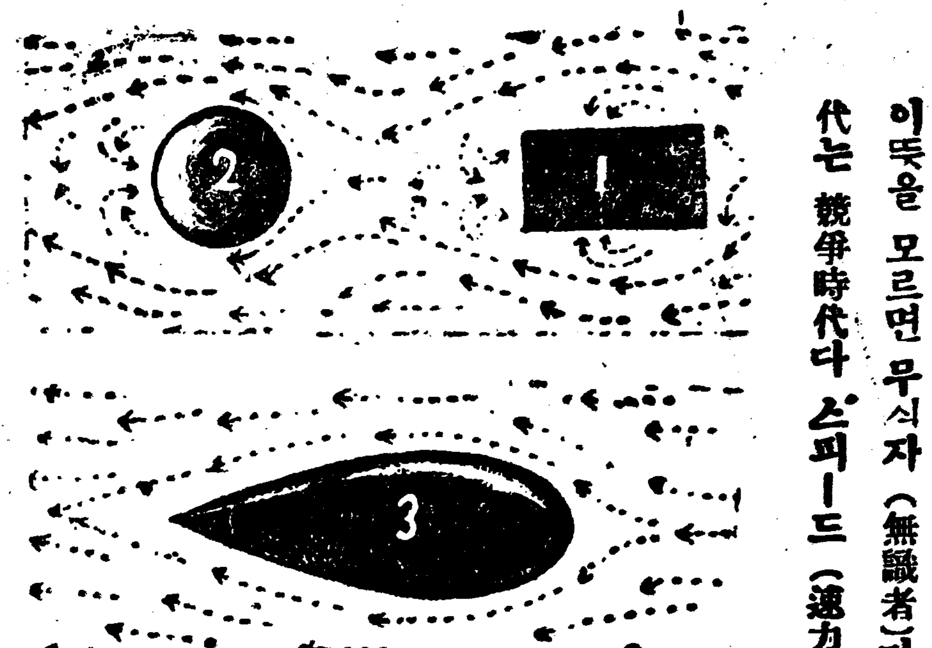
最新流行8型腕卷クローム側 時計形 磁針 指針正確

特別大景品進呈 『朝鮮日報』 愛讀者 라明記 『漢和大辭典』 注文者에 上記寫眞 特別景品 一個 進呈

●特別景品 箱入의 漢和大辭典과 同封包裝 嚴重 小包便으로送

申込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二ノ五 振替東京三二八二番 東亞堂殘本部

이뜻을 모르면 무식자(無識者)다 락오자(落伍者)다 現代는 競爭時代다 스피-드(速力)時代다 流線型時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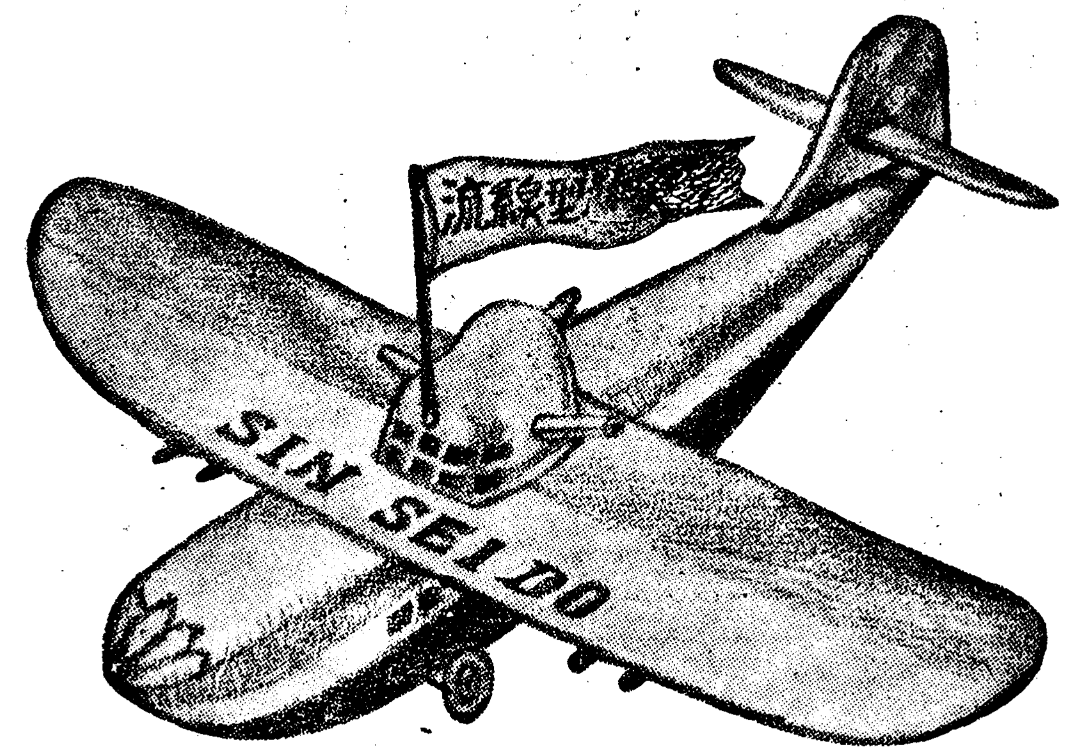


流線型―

流線型이란 무엇인가?

圖解說明

1 空氣의 抵抗이만어서 速力을낼수업다 2 圓와面前後에 自然空氣渦가생겨 速力을妨害한다 3 流線型은 空氣와水를 드럽게흘녀보내고 속속빠져서 最大速力으로 進―進―



無프로페라無爆音式爆擊機

神聖堂의藥効力은 流線型超스피―드 飛行機同樣

매독엔 푸로다ー가 제일이요

(PROTER)

만일 약을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로(特異性體質) 병에안맞거나 광고와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안맞거나 현저한특효가 업거든약을 곳 보내시오 청구대로하겟습니다

【가약】
효력최극상치 특등육백육 이상이랍니다

완고용 칠원 / 중증용 오원 / 경증용 삼원

지방송료 선금무료 대금인환 삼십전

매독엔 「푸로다ー」로

이원장광고를내는리유(理由)는 신성당사장이륙칠년전까지 매독이라는병이(엇더한병인지자세히몰낫섯다 물논병에걸난일이업서씀으로) 그뿐더러매독에는륙백륙호만마지면곳낫는줄알엇섯다 그런대근래(近來)륙백륙호로매독이완전히근본적으로완치안된다는말도듯고또실지로연구하여보앗다 또매독환자는 그다지만치안은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근본적으로잘못알엇다는것이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매독에걸녀서 즉시계속하야 일주일만에한번식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깐동안잠복식혀 매독균을눌너서 못성하게하엿다 (일주일전에또마질수업는것이다 일주일만에또마지면따병을악케되고 잘못하면 죽는고로 일주일만에한번식맛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결국륙백륙호로는 절대로매독이근본적으로완치되지안코 또 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 일시적정지를식힐수잇스나 곳또다시재발하는것을알엇다 그러면 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불이곳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저짜 아무소용이업고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하는것을알엇다 그뿐더러륙백륙호를마지면 목이약한사람은 약일주일동안은 일을못하고알코두러누어서 고통을밧는사람이만타 또 주사를잘못마저서 즉 주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죽게되는고로곳팔(腕)을 잘너버리고 병신이(不具者) 되는사람이만은것을알엇다 또 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은(十中七八名) 돈이업고틈이업서서 (金錢과時間이)주사를 열대(十本)이상맛지못하고 병을그대로두어서 살이퍽퍽썩어드러가는것을만히보왓다 그일례를들면(其一例)하로는 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 온전신에매독이 만창이된시골머슴을(雇人)대리고와서 이병좀곳처주시오 하고 왓는대 그병처를(患部)보고 깜작놀냇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말할수업는거이다 즉부문과(肛門)랑(囊)사이에이전(二錢)짜리동전만하게 큰구멍(孔)이뻐두러저잇섯다 아이저럭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 사람이엇더케사러왓나하고차차물어보니 서울서머슴사리를 하다가시골가서역시 머슴사리를하는대 우연히 매독에걸려 차차살이썩어먹어드러가니 머슴의신세라약쓸돈도업고 주사마질돈도업고하여 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럭케 구멍이크게 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종기부스럼(梅瘡腫)투특러저 인제는못살것갓터서 그전살든서울주인을차저와서 그전사러든정의로사람좀살녀주시오 하고 애걸(哀乞)을하러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 돈은내가낼터이니

불상한사람을좀살여주시요 하고차저왓섯다 그리하야약을주어섯더니완전한사람이되엿다 고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에 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대 얼굴이만창이되여송진처럼두덕이가저서 소름이끼치여서눈으로는볼수업시되엿는대 그분인말이 이병만곳처주면 죽어도그은혜를안이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 하는말이 여자가 얼굴이이럭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스므로 주사는물논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잇는대로 다ー쓰고 별별치료를다하여보왓스나종시낫지안하는대 엇던사람은 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풍약도무수히써도안되고하니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수잇느니 고말을하얏다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단순히매독즉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 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 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서령매독이안이고풍이라도조흐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하엿더니 멧칠후에그부인이왓는대말쑥한미인이되여왓다 아ー 참위대하구나 약의험이여 그럭케도 무섭게생겨눈으로볼수업든사람이수일간에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그부인말이 인제는 사러낫습니다 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노대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 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매독갓치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임질이나부인대하종냉병은자손에게유전(遺傳)은 안되는대 이매독은자손에게유전할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대대로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코가떠러지고○도빠지는 것을알게되엿다즉남편이병에걸니면그부인도물론곡걸니고아이도피속에그(菌)을 가지고나온다 참무서운병이다그리고 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 사실은그럭치안타 다ー비밀에붓치고 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그럭치안타 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 대개는 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 낫지못하고 고통을밧는것을알엇다 또수은(水銀)을피다가죽은사람이만코 다른홍을하다가병신된사람이만타 또 조약상약(造藥常藥)을쓰다가피를도하고구감(발등과창자를버려)이나서죽게된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으로이무서운 병을알면서 그양를수엽스므로충분히 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 감사장이 매일답지하므로자신을 어더이와가티광고를 내게된것이다 천만가저로약을하고 병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주저마시고 곳시험하시오를님업서 낫습니다

매독이라는것은 무엇인가?

[illegible] 작하는것이다 그런대 지금은 이유전보다는 전염하는것이만타 젊은청춘남녀에게 난대개매독균이만타 그런고로지연히피차간에전염하기가쉬웁다 그리하야 매독에한번걸리면대개六〇六호라는주사(注射)를 섭여대내마지면 일시적으로 늑닌균을잠복식히는 작용을하거는하나 근본적으로치료가 안되고 곳 재발하며 사시환절귀(四時換節期)가되면 반다시재발하여떠성하게된다。

그럼으로 六〇六號로는도저히절대근치안되는것이 증명(證明)되엿다 그외에난 지금까지 매독 [illegible]

이약은 매독뿐아니라 매독균으로인하야생기는무슨창병이던지 따ー낫는다즉감창、하감창、태독、장독、선천매독、후천매독시변독매독성루마지ー스、후감성매독등이다ー낫는다。또뇌매독(腦梅毒)이되면죽는다 코가 떠러지고신이빠지기전에속히나스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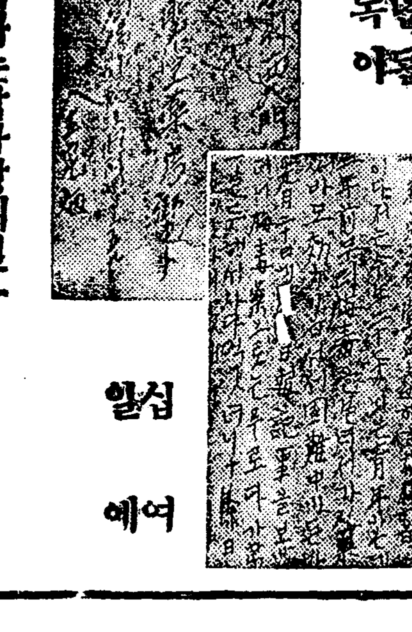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의유전 또는 전염으로 발생하야대개는 사루바루산 죽륙백륙호주사를 십여대나 마저야 겨우일시적으로 늑닌지지마완치가안되고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매 [illegible]

[illegible] 매독약(푸로다ー)(PROTER)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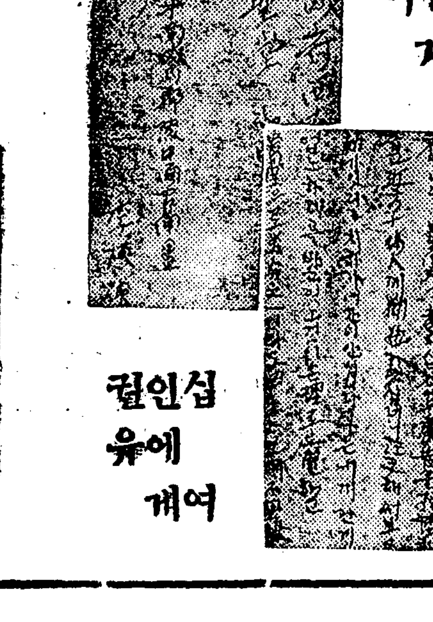
코가정한 예와같은 미인이 됩시다

코떠러진 이추부를보시고 주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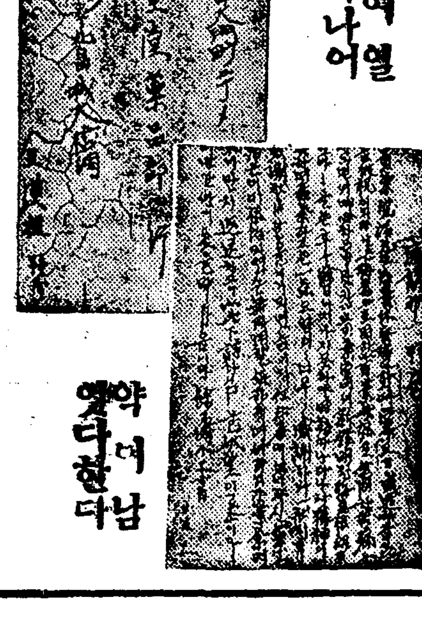
감사하는감사장의일부 여러감사장잇는약이또어디엣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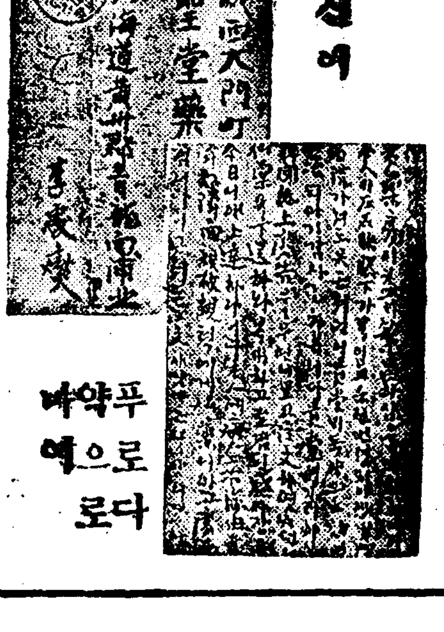
매에 독널 아열 일십 예여



나자 어개 가 결인십 유에 계여



첩여 에다 나어열 약너 엿다 남한다



습전에 푸로 약으로 매예로다

支店代理店特約店大募集

◎七大名藥外數十種을破天荒的大特典으로ー特約店을大募集하오니누구서던지規定書를請求하시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서대문정류장옆)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본)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金通貨不安深刻

和蘭은危機에直面

◇…瑞西亦是危險視

最近和蘭銀行의 公定步引步合引上은 白耳義의平價切下斷行以來 그動向이되든바 最近市場에는 刺戟을주어 瑞西佛國西等金通貨의軟化와 한가지로 金블럭崩壞의時期가 迫近한것이라고注目된다

×

和蘭의主要產業은 農業 畜產業과 工業인데 그經濟를補充할에足지못하고 貿易은 每年多額의入超를示하엿다 國民所得上 이것을 補充하는源泉으로는 外國投資 海運 中繼貿易 蘭領印度等의收入이 잇다 따라서 白耳義와가튼 對外貿易委縮으로因한重壓은免하엿스나一般的不況의影響은其他의나라와가티相當히深刻하다 金準備는法定率의 四〇%에對하야 三月四日現在에는 紙幣流通高八億七千九百萬「프랑」에對하야 金準備는 八億一千萬「프랑」으로 그準備率은 九割一分餘이다

×

그러나白耳義의 平價切下以來 資本逃避가 頻頻하다 和蘭은 이미 一九三一年英國의金本位停止에 際하야 金本位의危機에 當하얏스나 金本位停止에際하야는 다시 金擴大銀行(암스텔담·로텔담)·도이러한危險이 襲來하엿스나同國의 四大銀行制度의 完備로 再次의危機를免하엿다 金블럭의危機가傳케되든中에잇서도 그牙城을死守하야 堅壘를 자랑하여오든것이다

×

이번의資本逃避를막다만 和蘭銀行의利上으로서 막을수잇슬는지 疑問이며 가感은이危險信號에依하야물이혀 資本逃避가 激化하고 白耳義를 模倣하야 爲替管理를 強化하야서 第三次의 危機를버서날가 或은 모든努力이水泡로도라가 白耳義와 뭇실부 哭과가티 될는지 注目을 끄흔다 一面으로 佛國이金通貨를鞏固하야 金本位를死守하겟다고聲明한것과 對照하야매우興味가잇는問題인데 이번의佛國金通貨鞏固는 國金通貨鞏固는百法貨를 겨우 十億法으로 不過하다마엇슴은行되드래도 涉流紙幣二百億法이라고하든마큼 곳流通紙幣로부터 자취를 감추든것은 必然的으로 그結果는돌이혀 法貨에對한不安을 생기게할것으로 觀測된다 그러고 和蘭에比하야 가장危險視하는 것은 瑞西로 六月二日 國民投票에依하야 그經濟政策其他가 決定될것인데 이亦是 危險視되는터이다

(寫眞은佛國法貨)

國際經濟會議

米國政府必要意向

그러나提唱은回避

米國政府最高幹部 首腦部는歐洲가 今日의重大危局을匡救할方途는 決코政治的工作이아니라 國際經濟會議를 가장 誠實한意味로 開催하고 各國間의經濟問題相互의 調停을圖함에잇다는見解를 가지고잇슴이判明되엿다

×

即 國際關係의 根本的缺陷은一九一九年以來 累積한不自然한通商上의 現象에잇다 그缺陷을除去하야 經濟的均衡을圖하고 物質의超國家的活動을 自由롭게하는 平和條約을締結하는것이야말로歐洲를中心으로全世界에擴大되라는 戰雲을一掃하고 歐洲大戰의危機를解消케하는 唯一의方策이다 이대로는 巴里、伯林、莫斯科、와르소우、프라그、스트레자를一聯으로하는國際會談工作도 紙上에씃文字에不過하고 政治的軍事的合從連衡運動도 決코歐洲의安定을 期할것이못된다

×

以上과가튼 見解알에루즈벨트大統領 헐國務長官等 米國首腦部는歐洲諸大國의 要人과連絡折衝의 機會가 잇슬때마다 國際經濟關係의 平和促進을거듭하야 力說하고잇다 華盛頓當局이指摘하바에 依하면米國政府로서는 右見解로 國際經濟會議의開催를 衷心으로希望하고勸奬에힘쓰나 正面으로首唱하지안코 通商列國에그參加를要請하리라고는 이 立場上 避하고 他國의 右開催에對하야公正한 支持를할程度에 그칠方針 이라고한다 그理由는直接의當事者는 歐洲諸國이며이會議에依하야影響을 바들이最大한것도 亦是歐洲諸國임으로米國自身이開催할것이 아니라는데그理由를 부칠모양이라고한다

移出入貿易激增

一月後二億五千萬圓

出超는二千三百七十五萬圓

原因移出米增加로

【八日總督府發表】今年一月以來 朝鮮對日本內地貿易은 移出一億三千六百九十九萬圓으로前年에比하면 三千八百萬圓增 移入은一億千六百二十四萬圓으로前年보다二千九百八十八萬圓增으로 總移出은 二億五千二十三萬圓으로 前年에比하야 六千七百八十九萬圓의增加인데結局出超二千三百七十五萬圓으로 前年에比하야 八百十一萬圓의增加이다 이와가티 激增된것은朝鮮內各地工業勃興으로因한 移入品增加와 日本內地의凶作으로 朝鮮米移出增加가 그主要한原因이라고한다

三月中移入

◇…一層增加의數字

【八日總督府發表】三月中朝鮮對日本內地貿易은 移出은 四千六百五十四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一千三百二十八萬圓增이나 移入은 四千四百六十八萬圓으로 前年同期보다一千三百六十一萬圓激增을 示하야 出超百八十六萬圓으로前年同期보다 百卅三萬圓 減이다

	本年	增減(△印減)
	千圓	千圓
移出	四六、五四六	一三、二八三
移入	四四、六八五	一三、六一九
計	九一、二三一	二五、九〇三
出超	一、八六〇	△一、三三五

二百九十四萬八千百三十圓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三萬五千二百七十六圓의增加이다

(以下單位圓)

◆京城一、一五九、九八一◆全州六三三、七四二◆大邱五七七、一〇二◆平壤五七八、三三〇

滿鮮土地仲介會社

資金廿萬圓으로

滿鮮土地鑛山 뿌로카株式會社(資本金二十萬圓四分에一拂込)는事務所를鍾路三丁目에두고 土地鑛山의仲介 賣買 金融及調査、鑑定、出願等事業을 開始하엿는데그重役은알에와가티다고

▲社長=梁在昶 ▲專務=成士慶 ▲取締役=崔楠 趙賢燮 石春洪 崔元淳 崔相珠 ▲監査役=崔翰字 李圭顯

無煙炭合同

◇…成立可望이樹立

成立困難을豫想하든 無煙炭合同은 月下穗積殖產局長、石田鑛山課長等總督府關係幹部의渡東에依하야 各社重役間에 個別協議를開始하야 最後의工作을하고잇告를하기爲하야 七日先發歸京하고 穗積局長、石田課長도 十三日頃까지는歸任할 豫定이라하며 로되엇다고

느저도 四月中에는 假調印이되리라하는데 一個年의時日을허비하야 波瀾曲折을거듭하든 無煙炭合同도 不遠에圓滿解決을보게될模樣이라한다

無煙炭合同後도

東拓鑛業存續

東拓에서는 無煙炭合同成立後의東拓鑛業會社 經營方針에對하야首腦者間에 無煙炭合同問題의進捗과並行的으로 考究中인데 結局無煙炭事業을 新合同會社에讓渡한뒤도 同社는存續케하야現在東拓朝鮮支社 鑛業課에서取扱하는直營鑛山事業과 關係鑛山事業一切를 東拓으로하여금 繼承케하기로 大體意見이 一致되엿고 그實現後의 東拓朝鮮支社鑛業課는 支社金融課에 隸屬케하기로되바 그實現은 無煙炭合同確後 即五日의臨時株主總會에서 東拓理事更迭後로觀測되다고한다

各會社의總會

▲東拓=五月二十日 臨時株主總會를열고 任期滿了의理事 監事改選과 理事一名增員에伴하는 補選及前理事山田穆氏에 慰勞金贈呈의件을附議키로되엇다고

▲朝鐵=五月十七日午前十時부터 同社에서 定期總會를열고 九年下半期決算案利益金分配案과 竹島社長辭任에伴하는後任社長補選의件等을附議키로되엇다고

▲朝鐵 四月二十一日同社에서定期株主總會를열고

一、昭和九年下期諸決算承認件

二、同期利益金處分件

三、物故取締役武和三郎氏、辭任監查役山田穆氏後任選舉件

四、山田監查役에慰勞金贈呈의件

五、社債借換件

滿洲會計年度變更

【新京電話商通】政府는 會計年度를 고처서 康德三年以後每年一月一日로부터 그當年의十二月三十一日로 끗내이는方針으로 今年七月一日로부터 康德二年度豫算에對하야는十二月三十一日까지의六個月을編成키로되엇다

對外爲替市況

	賣	買
對米	二十九弗四分一	二十八弗十六分五
對英	一志二片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

	賣	買
對米	二十八弗十六分七	二十八弗十六分五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局鐵朝鮮米發送

◇六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九七	一、六二四	一七〇同
京城	四八三	九八二	四九九同
平壤	四三五	三三一	一〇四增
元山	三六	一〇九	七三減
城津	五	四	一增
合計	二、六〇三	四、八三六	二、二三六減
累計	一五、一一三	二四、七〇八	九、五九五同

◇七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五九九俵	九六二俵	三六三減
大田	一、一八九	一、二五八	六九同
京城	三三三	六八一	三四八同
平壤	四〇六	三九〇	一六增
元山	六	二〇	一四減
城津	一	一五	一四同
合計	二、四九四	三、三二六	八三二同
累計	一七、六〇七	二八、〇三四	一〇、四二七同

朝鮮產業의

增產低資額

五月預金部委員會附議

大藏省預金部昭和十年度第一回運用委員會는 五月初에열기로되바 朝鮮關係의 今年度受入豫定의產米增殖關係資金等도同委員會에附議決定키로되엇다

滿鐵私鐵助成

【新京電話商通】滿洲國政府에서는 國內產業開發의見地上 地方鐵道五千粁의敷設이 必要하고그實現을希望하는데 政府財政難으로 이것을私設鐵道로 民間의投資를誘致하든바 民間鐵道會社에對하야는 五個年限年五分配當保證을附하는것으로 目下私設地方鐵道事業法、同補助法 其他附則法律案을 作成中이며 將來政府의財政에 餘裕가 생길境遇 買上을條件으로한다 그러고 이外建設材料의 免稅 國鐵과의運輸連絡、運賃制限等을 日本資本家의 鐵道投資로 獎勵할方針이라고한다

新京取引所好況

【新京電話商通】新京取引所는오랫동안業績不振이든바 昨春以來四圍의情勢好轉과 特產物市勢의緩騰等으로 昨秋부터取引活況을呈하고 今年에 더욱 盛況을呈한다 業績을보면 開所以來의記錄으로大連、哈爾賓兩市場에 다음가는業績인데 三月中의賣買高는 다음과갓다

混保	大豆	一〇、四〇二車
	高粱	二〇〇車
鈔票對金票		七、七六一千圓
國幣對鈔票		五、六九三千圓

製造煙草賣渡

【專賣局調查】三月中製造煙草賣渡高는合計

朝鮮通信收入

昨年度四十萬圓增

朝鮮遞信事業으로 黑字를呈하야目下遞信局에서 仝朝鮮各局所의九年度仝收入狀況을 取集中인데 印紙收入을 除外한郵通信收入만으로도 一千七百二十九萬圓에達하야豫算에比하면約四十萬圓、前年度實績에比하면百五十萬圓豫의大增收를보리라고한다

社의態度는 大體異議가업게되엇는바 總督府의評價原案에對한各社의態度는 大體異議가업게되엇고 政治的으로多少問題가 남어잇스나 合同成立을될形勢에잇슴으로 高濟鑛山課技師는 中間報

平價切下白耳義

金準備率漸次好轉

【電通부랏셀七日發】白耳義中央銀行의 四月四日現在金準備率은 六割三分六厘七毛로金本位停止直前의 五割六分七厘三毛에比하야 顯著히好轉하다 그러고 이것은金의中央銀行에의 還流도反映한것이다

電力料金의

低減을望要

商議部會에서決定

京城商工會議所에서 六日工業部會를열고 工業用動力料金의低減에對하야協議한바 成案을어덧슴으로 役員會에廻付하야 要望하기로되엇는데 그焦點은大體의動力料金보다도 小需의動力料金의引下에重點을두기를望하는模樣이라한다

多獅島 道株公募

多獅島臨江鐵道會社(資本金三百萬圓四分의一拂込)의創立委員長은藤原喜次郎氏로決定되어 公募株二萬株는 本月末公募하기로決定、京城에서創立事務를 보고잇는王子製紙參與藤井請夫氏는 八日新義州에赴하야 二、三日滯在協議하고渡東할豫定이라는바創立總會는六月頃이라한다

穀檢支所長會

八日부터三日間開

穀物檢查所에서는 八日부터十日까지의三日間 京城赤十字社支部에서支所長會議를열고 出席者는山澤總督府農產課長、三代農林局技師、石塚所長、吉識監督課長을비롯하야 河越(釜山)横山(元山)尾崎(鎭南浦)의各支所長 藤本支 係官 石塚所長訓辭에 主로十年度의貸施함 粗製補檢查에 關한協議를거듭키로 되엇다고한다

經濟界消息

▲日本제·랄·모타스 新신보레披露販賣店會議=一九三五年度의新신보레를 發表함에잇서 例年과가티 全國特約販賣店會議를四月二日 午前十時부터 大阪總本社에서 열기로 되고 目下會議中이라고

▲電氣協會總會=朝鮮電氣協會에서는 五月十四、五의 兩日定時總會를열고 會務報告、豫算決算의承認、役員의改選을할터이라고

▲大川朝鐵社長入京期=朝鮮鐵道에서는 四月十日東京에서重役會를열고 今期決算案을附議할터인데配當은 八分을內定하고大川社長은 二十日의定期總會出席次二十日 入京豫定이라고

今日財界(八日)

◆米 (單位圓)

	先限	比前日
仁川期米	二六·一〇	三〇低
大阪期米	二六·三〇	六〇低
京城正米(三等米)	二七·五〇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一四·三〇	不變

◆市中金融

一斤價	在來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取	一二〇·〇〇	[illegible]
東新	一四六·〇〇	[illegible]
日產	九六·七〇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一九五·二〇	[illegible]
大阪綿花	三九·三〇	不變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商況(八日)

株式 繼續의軟調

前場低落 休日前에 戻買人氣로 低落을示하엿든바 今前場에도 그軟勢가 繼續되야 諸株는 모두 稍軟의 步調를 示하엿다 即休日前止價에 比하면 東新六十錢低인 百四十六圓七十錢、日產一圓十錢低인 九十七圓十錢、大新五十錢低인 八十九圓七十錢의 各寄付가잇슨뒤 多少反強勢가 不無하엿스나 戻賣에눌려 大引에는 東新百四十六圓二十錢、日產九十六圓五十錢 大新八十九圓으로 續落하엿다

後場續落 前場의 軟勢가不變으로 大新八十九圓 東新十錢低인百四十六圓 日產二十錢低인九十六圓七十錢의各寄付가잇슨뒤 多少反強의勢를示하엿다

戻賣人氣相當

兩方警戒濃厚

休日前에 人造絹操短說이 買氣를促하엿스나 그뒤의消息에依하야아즉確定的에 일운것이아닌만아니라 그時期如何에對한定見이업는터이다 그러고歐洲金本位뿔럭은和蘭危機直面說의뒤를이여서 瑞西까지도 危險視한다고傳하는것이 添加하야戻賣人氣가相當케되고말허서 前場에도 下勢押目買氣도 不無하야 追擊賣를 躊躇하는傾向을 띄엿다 그러나 一面으로가緩續하엿다 그럼으로 市勢는 추충거리면서 떨어지는바 結局에는 兩方을通하야氣迷人氣가 濃厚한商狀이다

春眠市勢域內

環境이不鮮明

그동안 玉整理가되고 一面으로賣込되어잇든마큼 市勢의바다이세이맛이 相當히잇는點으로는多少反撥이잇슴즉도 한것가티생각이든다 그러나 오늘의環境을말하면 한때買氣를 喚起케하는強材料가不無하지만 이것은또弱材料의訂正消息이 傳하는만큼그根據가薄弱하야 이것을信賴함을躊躇케된다 그뿐만아니라 材料의消息도 不無한때문으로積極的買進의 勇氣를 鼓吹하는힘이적다 그래서 市勢는 伸氣가繼續되지못하야 곳뒤로 물너안게되다 그럿타고해서 이軟退를追擊하야 賣込하기도 어려운情勢알에잇다 即 市勢의 바다이세인데다가 目下環境을 樂觀키어렵다고 하지만 亦是悲觀 까지 尙早하고 境遇에 依하야強氣를 가질 根據도無함으로賣込에잇서도 深込을 避케된다 그래서 結局에는 戻賣와 押目買의 對立으로 將次展開될다四圍事情의 推移를 注視하고잇슴에그치는 警戒人氣가 相當한터이다

▲한때는 日中提携說이 旺盛하든것이 英國의態度로 合면이 그消息이 無勢케되어가는 關係者의 和蘭利上으로 그鐵鋼이 一時的이라도 멈추게될것가티 傳하야 依然이모롱모롱이에서 특륙뭉거지는 政治的 經濟的不安으로 다시鐵鋼의機運이 濃厚하고 또瑞西도危險하다는말이 傳한다

▲內로는 機關의問題와 國策審議會를 싸고도는政局의不安이 이 때에딸하서 傳한다 以上과가튼環境알에 잇슴으로고

市場六感

【株】▲人絹二割操短說을뗄 허서 떼엿든 市勢는그뒤를 잇대이는強材料의消息이업슴으로 休日前부터 會면이 뒤로 물너안지는것이 아즉도 사기가 어려운때임을 말하여주는듯 ▲그럿치만 暴騰하엿든 市勢의뒤거름이 別로急지안흔거름을 보면 그바닥을 합으로 弱하다고 생각키도 어려울것갓다 ▲어쩌튼지 戻賣人氣도 相當하지만 나즌갑을 엿보아서 買拾하랴는人氣도 等閑히 보지 못할點

【米】▲이것은 오늘의四圍事情이 強케도 볼수잇고 또 弱케도 볼수잇는 鮮明치못한所以 ▲그럼으로 強弱材料中 어느便이든지 鮮明케될을 기달려서 動할수밧게업고 따라서 當分間 春眠市勢의 느린거름이 거듭케될듯하다 ▲政府米의大量拂下說은鳥有에歸하고來六月부터 十月까지의五個月間을두고每月五十萬石式拂下한다나▲此가實現되는때에는 實勢의壓迫도加하려니와 供給不足의憂慮도一掃? ▲四月에 入하기까지 各集散市場은在米의減退는姑舍하고 돌이혀增加하는

米期

嫌氣의投出로

畢竟崩落을出現

前場瓦落 再昨後場阪地三十圓七十二錢止와共히 二十八圓二十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一休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六十五錢인 七丁反落을擔하고二十八圓三十七錢인 三丁低로場을始한後 阪地稍漸低移로二十八錢의最低로止場함을伴하야 八節十七錢으로軟化하야場을止하엿다가入錢에止하엿다

後場續落 前場보다八錢低인二十八圓四十八錢에場을始한 圖價가깨여저七圓九十九錢이잇서다가다시八圓臺를恢復하야 八圓十錢에 頑强히止場하얏다

天災期의六限

前途果如何?

減殺期의初期라할수잇는四月에入하엿슴에도 集散市場은少量도影響이업시도리혀 在米加의實勢를追加하게되는 此因은그동안高米價를維持하여오기때문에 一般消費層으로自然節食을하게되고 持米側은 絕對賣惜을하고잇스며 一方日本內地로서는 朝鮮米의騰貴採算이맛지안어서 買注文을하지안는關係로 朝鮮米는 自然地의在庫潤澤으로 自然騰貴을 受하게되는 光景이다 果然 前天災期에臨하게되는 六限戰의 今後가 如何히 展開될지이로부터 興味가津津할모양인데 昨今의天候로보면 一個月以上旱天은繼續하야 植付難의 歎이업지안을것도가트나 植付期가 아즉도時日이多함으로 一朝豪雨를 降하야 植付樂觀의謳歌를 볼지도亦是未知일것이다 그럼으로六限의孕운 天氣의 如何에依하야 左右될모양이다

買氣又復阻喪

政府米拂下說에

一時政府는 來五六月頃에 所有古米의大量拂下를하기로 宣言할예떼하 客月中에既히第一次行動을한바잇서다 그러나深入落을許하지안고本月에入하면서 新市六限의發會와 共히 一段反高를示하엿스나高價에는 買方도도한警戒自重하는中 再昨後場부터는政府米의大量拂下와 方針이一變하야來六月부터 來十月까지의 五個月間에亘하야 每月五十萬石式平均拂下한다는說이 傳播되어市勢는又一層軟弱에 陷하게되엿다 要하면 本年은아무리凶作의翌年으로 需給難의數量을免치못할것으로누구나 豫期하엿든바이나 政府가 五個月間에 二百五十萬石을如實히 拂下하는때에는殘存米의節食과 臺灣第一期米의移入及는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低이나產地가繼續하야팔지안코 一面買方은低價鮮로引無의狀態인데氣配二十錢軟化로 三等廿七圓六十錢四等廿七圓三十錢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東京低와 永尚、三木、潮政의優勢賣進으로 新市六月限은前月의 低價를下廻하는無勢量出現하엿는데 主力買方田中貞、高橋、潮崎는防戰的으로買進하엿다

朝取取組高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在米增加

【仁川】本月六日現在仁川在米는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八、七三八叺의 增加量示하엿는데 在庫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六五〇、三四五叺 五斗入一、四一一叺 ▲白米四斗入二六、六〇〇叺 五斗入二三一叺 ▲正租叺入二三三、五六四叺 俵入四二、八九一俵 ▲大豆四五、五〇六叺 八九俵 ▲小豆一、二〇五叺 ▲大麥三、七六〇叺(白)八、六五二叺(裸)三四五叺 ▲小麥二八、六八六叺 五斗入一五〇叺 ▲粉米一四〇叺九六叺 ▲粟叺入九四三叺 俵八一六、六三三五俵 ▲荏子三八〇叺 ▲胡麻一四叺 ▲高粱叺入二〇〇叺 俵入一、三三七俵 ▲蕎麥一、六八一叺 ▲糯白米一五〇叺 ▲蕎丸糯四九〇袋

仁川崩落

不渡의 때에定期는 小量보고 新規買物이업서無勢裡으로崩散市況이엇는데 市勢는定期에追從하야 二十錢低로㊂三等廿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五錢

釜山弱含

市場出廻 三千叺로依然而強하야 產地는不感應으로定期의暴落으로 月初에도不拘하고 買氣가엇고必需當用側이 多少買向한에不過하엿는데 氣配五十錢弱含의商狀으로 ㊂三等二十八圓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六錢

大邱下放

今朝는 期米의反落으로 一部마바라 處分物이잇섯스나 實不振으로 買方은一齊히弱蹴하야 賣買가殆無하고氣配二十錢低이엇는데 ㊂三等二十七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群山反落

出廻는 겨우 四千叺로 散山時의崩落을보고도 產地賣渡은로容易히 안떠러지고 日本內地의買注文은이적고 地場의買氣만喪으로極度賣買不振하야 二十錢低이엇는데㊂三等二十七圓八十錢 四等二十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木浦閑散

出廻五千叺 淸算의惡化로嫌氣賣物이 多少잇서다 買方極度로留保하야日本內地當用少量의入注가殆見되엇스나 不成이엇는데 氣配二十錢低로㊂三等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南浦慘落

產地所持側은 高價代로維持를期米의暴落을보고도、賣物이업서서市場이 매우賣物薄이며 買方은모두 沈默으로氣配四十五錢慘落이엇는데 ㊂三等廿七圓八十錢 四等廿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朝取主要株取組

◆日產(賣) 小林[illegible] 德發[illegible] 金光[illegible] 白井[illegible] 大塚[illegible] 古賀[illegible] 金谷[illegible] 東京[illegible] 山口[illegible] 立山[illegible] 丸佳[illegible] 新田[illegible] 內海[illegible] 白榮[illegible] 藤川[illegible] 山本[illegible] 大原[illegible] 德樂[illegible] 山口[illegible] 小林[illegible] (買)[illegible]

◆朝新(賣) 小林[illegible] 白井[illegible] 大原[illegible] 東雲[illegible] 立山[illegible] 山本[illegible] (買)[illegible] 京城[illegible] 成濟[illegible] 松[illegible]

實物前取引

賣買高二百七十枚 ▲京城電氣二〇〇 ▲滿洲세멘트三〇 ▲에라바이新一〇 ▲東拓一〇 ▲帝蠶新一〇 ▲朝鮮製絲一〇 ▲富士木材一〇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株式低조를伴하야 마바라投物로 賣物이散見되야 內債는 五錢 軟調 外債도 佛貨는十五錢低이엇고 英貨의 強調와米貨는五、六十錢低落이엇다

▲甲五分利	一八五〇
▲二回四分利	不申
▲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不申

金融(八日)

◎海外經濟◎六日

◎朝鮮銀行券◎六日

◎日本銀行券◎六日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illegible]

米穀(八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八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시카고期麥◎

◎豆油沖價◎

◎豆粕沖價◎

[illegible]	[illegible]

小林幹三商店
期米 株式 京城府本町二丁目 明治町一丁目

株式(八日)

◆朝取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清算代引日步◆

[illegible]	[illegible]

期米(八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賣買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商品(八日)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大阪市中在米高◆ 一二三五七九八俵 一六〇四五俵減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